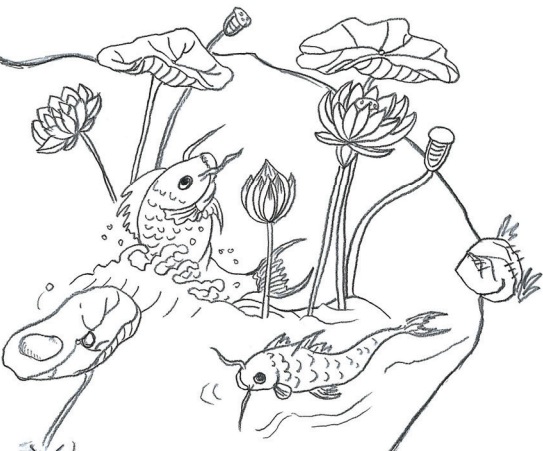




제19기 박물관대학 상반기 과정

# 庭園 삶의 여유 공간 I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제19기 박물관대학 상반기 과정 운영 개요

- 교 육 명 : 2017년 「제19기 박물관대학」 상반기 과정
- 교육일시 : 2017. 5. 26.(금) ~ 7. 14.(금) 중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
- 장 소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1층 석남홀
- 주 제 : 삶의 여유 공간, 庭園
- 대 상 : 성인 140명 이내
- 교육내용 및 강사

연번	날 짜	분 야	강 의 주 제	강 사
1	5월 26일	개관	한국의 전통 원림/정원	박 경 자 (전통경관보전연구원)
2	6월 2일	사상	전통 정원에 깃든 사상	허 균 (한국민예미술연구소)
3	6월 9일	회화	옛 그림에 표현된 정원	송 희 경 (이화여자대학교)
4	6월 16일	건축	창덕궁 후원의 경영과 건축	이 강 근 (서울시립대학교)
5	6월 23일	답사	경복궁, 창덕궁 등 궁궐 정원	-
6	6월 30일	조경	조선 궁궐의 원림 문화	박 희 성 (서울학연구소)
7	7월 7일	도자	정원 문화 속 도자기; 실용과 완상의 기물	구 혜 인 (추계예술대학교)
8	7월 14일	문학	한시(漢詩)로 정원을 노래하다	권 진 욱 (고려대학교)

※ 강의 일정 및 기타사항 변경 가능성 있음





# 목차

한국의 전통 원림/정원 .....	박 경 자 .....	07
전통 정원에 깃든 사상 .....	허 균 .....	29
옛 그림에 표현된 정원 .....	송 희 경 .....	39
창덕궁 후원의 경영과 건축 .....	이 강 근 .....	47
조선 궁궐의 원림 문화 .....	박 희 성 .....	55
정원 문화 속 도자기; 실용과 완상의 기물 .....	구 혜 인 .....	73
한시(漢詩)로 정원을 노래하다 .....	권 진 옥 .....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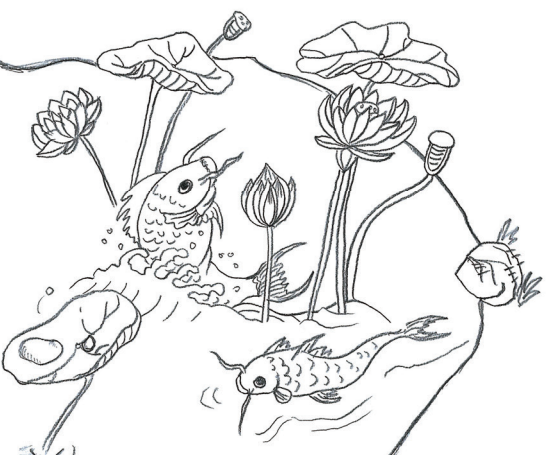






# 한국의 전통 원림/정원

박경자 (전통문화관광전문연구원)







박 경 자 (전통경관보전연구원)

한국 전통 원림/정원에 대한 첫인상은 ‘자연을 사랑한다’고 표현해야할 것 같다. 원림/정원은 깊은 자연애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고,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과 물의 ‘산수’ 용어는 중국어로서 경관(景觀)을 뜻한다. 이러한 한국 전통 원림/정원도 크게 보면 산과 물로 구성되어 있다. 연못을 파고 주변에 인공 산을 만들고 건축물을 배치하고 나무를 심었다. 여기에는 전통적으로 도교, 불교, 유교의 영향이 컸고, 터잡기, 방위 등에서는 풍수의 영향도 컸다.

동북아3국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새봄을 맞이하여 목욕재계하고 천신께제사 지낸 후 곡수연을 하던 곡수유상의 풍속도 오랫동안 성행해왔다. 근래에 와서 중국, 일본에서는 이 곡수연을 복원시연하고 있고 한국도 현재 경주시에서 시연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전통 원림/정원 만드는 기법은 상당히 발달해서, 담 밖의 경치를 끌어오는 차경기법과 마당 가꾸기에서 원림/정원을 구성하는 담장 등 건축물과 정원식물 등에서 우수함이 크게 드러난다.

## I. 자연을 사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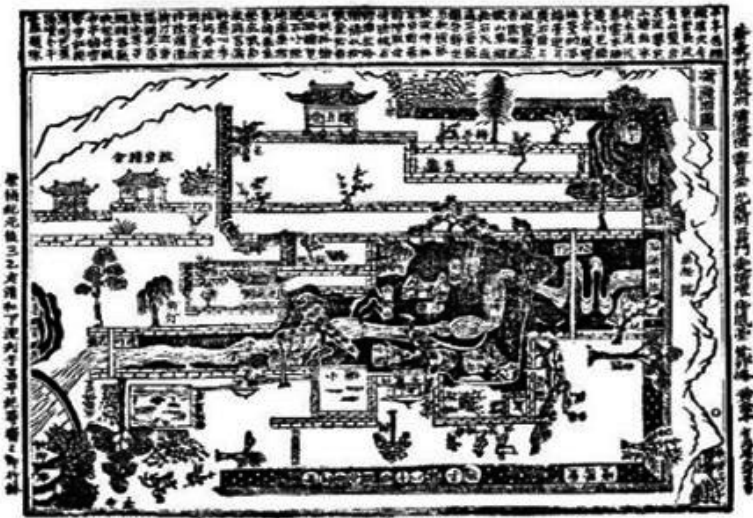
무릉도원 등 낙원을 꿈꾸다

자연에 대한 깊은 사랑이 고질병(泉石膏肓)이 되었다

이전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산천을 나이 들어서 직접 가보지 못하자, 누워서 그림, 시문들을 보면서 대신 즐겼다(臥遊)

벼슬을 마다하고 숨어서 지냄(隱逸), 은일하는 자(隱者)의 집에 별서원림을 만들었다

## 대표적인 별서원림



▲ 담양 소재원도



▲ 원도 세연정 원림

## II. 산

1. 원림/정원에 연못을 파고 나온 흙으로 연못가에 인공산인 가산(假山)을 쌓았다. 돌로 만든 가산이 석가산이다.

### 2. 도교의 신선사상

연못을 파고 연못 속에 불로장생하는 신선이 산다는 봉래, 방장, 영주의 삼신산(三神山)을 만들었다. 하나만 만들 때는 봉래산(蓬萊山)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삼신산은 백제시대 부여에 있는 궁남지에 방장선산을 만들었다는 기록에 나온다.



▲ 통일신라 경주 월지(안압지) 항공사진



▲ 전북 남원 광한루와 연못



### 3. 석가산, 목가산, 괴석

천석고황을 치유하기 위해 기괴한 생김새의 돌을 쌓아서 가짜 산인 석가산을 만들어 즐겼다  
 괴이한 모양의 나무등걸을 손질해서 가짜 산을 만들었다(木假山). 기이한 모양의 괴석을 놓기도 했다.  
 석가산, 목가산, 괴석은 모두 도교의 삼신산을 상징했고, 가산에 관한 많은 옛 기록들이 전해진다.  
 현재 이러한 옛 석가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아파트 단지 등의 정원에 많이 만들고 있다.



1. 창경궁  
 2,3. 괴석 창경궁 통명정지 괴석,  
 삼신산을 상징한다.



▲ 채수 석가산 복원도



▲ 경북 달성 하업정 연못가 괴석



▲ 중국 청대 옥가산  
 (미국 스탠포드 대학 박물관 소장)





▲ 반포 래미안 석가산



▲ 일산 자이 석가산

### Ⅲ. 물

#### 1. 유유자적(悠悠自適)

원림/정원을 만들려고 연못을 파고 가산을 쌓아서 집안에 자연을 들여놓고, 세상에 대한 욕심없이 유유자적하게 생활하던 군자들이 있고, 문인들은 원림/정원의 아름다움을 많은 시문으로 남겼다.

#### 2. 연꽃, 愛蓮說

주염계(周濂溪)는 애련설에서 진흙 속에서도 청정한 꽃을 피어내는 연꽃을 세속에 물들지 않은 선비의 고고함에 비유했고, 불교에서 『화엄경』에는 연꽃의 향(香), 결(潔), 청(淸), 정(淨)의 네 가지 덕을 기록하고 있다. 더러운 진흙 수렁에서 물들지 않고 청정하게 피는 연꽃을, 정신적인 괴로움(번뇌)에서 벗어나 청정함을 추구하는,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불교의 이상으로 연꽃을 표현했다.



◀◀ 백련당 연못(전남 강진군 성전면 금담리)

◀ 조계사 연꽃

### 3. 연못

연못은 가산과 함께 원림/정원의 중심공간이다.

통일신라시대 월지(안압지), 조선시대 부용지 등 궁궐연못과 민가·사찰 등에는 수많은 연못을 만들어서 원림/정원을 꾸몄다. 연못을 만드는 기법은 다양하며, 문헌에 많은 기록들이 전한다.



▲ 경주 월지(안압지)



▲ 창덕궁 부용지



▲ 경북 영양 서석지



▲ 경북 봉화 권충재의 청암정



▲ 경북 예천 초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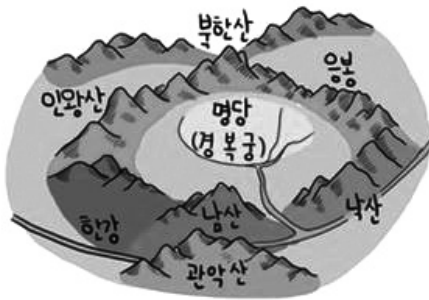


▲ 겸재의 쌍도정도

## IV. 풍수

풍수라는 말은 바람을 막고 물을 얻는다는 뜻인 장풍 득수(藏風得水)를 줄인 말이다.

동북아3국 한·중·일에서는 풍수에 대해서 과학적, 학문적으로 먼저 살펴보는 것이 산수인데, 산과 물은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조건으로 산은 좌청룡(左靑龍), 우백호(右白虎), 전朱雀(前朱雀), 후현무(後玄武)의 좌향을 살펴보고, 물은 흘러가는 입출구를 따져 뒤쪽은 산으로 에워싸여 있고, 앞으로는 하천이 흐르는 곡구나 산자락 경사면의 입지를 말하는 것으로, 풍수 지리적으로 볼 때 명당으로 보는 것이 풍수의 기본개념이다



### 1. 터잡기

背山臨水, 長風得水 등 터잡기 방식을 고려했다.

### 2. 방위

동서남북 4방위에는 左靑龍, 右白虎, 前朱雀, 後玄武를 상징했다.

### 3. 숫자

신호하고, 기피하는 숫자  
홀짝수 배열

## V. 곡수연(曲水宴)

곡수연은 중국, 일본에서는 곡수유상(曲水流觴), 한국에서는 유상곡수(流觴曲水)라 한다.

새 봄에 목욕재계하고 천신께 제사 드린 후에 구불구불한 도랑에 술잔을 띄우고 잔이 자기 앞에 올 때까지 시를 읊지 못하면 벌주를 마시던 고대부터 전해진 풍속이다.

현재 경주 포석정에는 곡수연하던 석구(돌로 만든 도랑)만이 남아있다.



◀ 경주 포석정

## Ⅵ. 원림/정원 만드는 기법

- 차경(借景)

담 밖의 좋은 경치를 내 원림/정원 안으로 끌어들이는 기법

우리 주택은 일반적으로 배산임수하는 산자락 경사면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내 담 안에서 담 밖의 좋은 경치를 내려다보며 담 안으로 그 좋은 경치를 끌어들이어서 즐길 수 있다

- 전통조경 구조물에는 그 시대의 원림/정원양식의 특징이 분명히 나타나며, 현재의 조경설계에서 연못, 가산, 정자, 담장, 화계, 장승 등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마을을 한 예로 들면, 마을 어귀에서 장승 솟대가 객을 처음 맞이하고, 옛길을 따라 걸어 들어가면 정자(누정)를 볼 수 있다. 다음에 나타나는 가옥은 문과 담장으로 둘러싸여있고 집 앞이나 별당에는 연못과 돌로 쌓은 석가산이 놓여있고, 집안 마당에는 연못대신에 석조가 놓이기도 하고, 마당에는 괴석, 우물, 장독대, 석등, 채마밭, 정원 식물들이 심어져있고, 집 후면에는 굴뚝이 있고 언덕에는 서너개의 계단을 만들어 화계를 만들고 주로 관목이나 앵두, 감나무 등 과실수를 심었다.

### 1. 솟대, 장승

솟대는 나무나 돌로 만든 새를 장대나 돌기둥 위에 얹힌 마을의 신앙 대상이다. 마을 입구에서 마을 밖의 부정을 막으며 마을의 신성을 지키는 역할을 했다.

장승은 소나무, 밤나무, 오리나무, 또는 돌을 재료로 하여 얼굴을 귀신이나 장군처럼 조각하는데 드물게는 노인, 선비, 문무관, 미륵, 보살처럼 만들기도 했다. 장승은 수호신의 역할로서 잡귀를 쫓고 성속(聖俗)의 구별을 위한 것이었고, 또한 이정표와 경계표의 역할을 했다. 장승의 무서운 모양은 천연두를 쫓기 위한 것이었다.





▲ 솃대(전남 장성군 동화면 동계마을)



- |                          |                                 |
|--------------------------|---------------------------------|
| 1. 솃대(전남 장성군 동화면 동계마을)   | 7. 부안 동문안 장대(전북)                |
| 2. 할아버지 장승(전남 나주 운흥사 입구) | 8. 입석(전남 곡성군 삼기면 남계리)           |
| 3. 할머니 장승(전남 나주 운흥사 입구)  | 9. 장승(동방대장군, 전남 화순군 동북면 하기수리)   |
| 4. 고사목 장승(전남 영산포 상고 내)   | 10. 장승( 서방대장군, 전남 화순군 동북면 하기수리) |
| 5. 부안 동문안 할머니 장승(전북)     | 11. 장대(전남 영광군 영산면 반안리)          |
| 6. 부안 동문안 할아버지 장승(전북)    | 12. 미륵(전남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

## 2. 옛길



▲ 용인 민속촌

## 3. 누정: 누정, 모정

누정은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누(樓), 정(亭), 당(堂), 대(臺), 각(閣) 현(軒), 청(廳) 관(館)·(觀), 방(房) 등을 포함한다.

모정은 여름철 마을주민의 휴식처이며 방이 없고 마루만으로 만들어진 작은 규모의 초가지붕 건물로 마을의 공유재산이고 주로 일하는 일꾼인 남자들이 사용하며 전라도지방에 집중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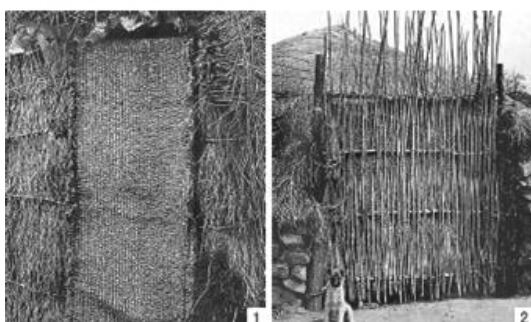


▲ 담양 소쇄원 소쇄정



▲ 전남 담양 송강정 (松江亭)

#### 4. 문 : 일각문, 홍예문, 사립문



1. 전북 고창군 성내면 수동리 서적문 (이경재, 문, 열화당 P197)
2. 전남 나주군 다도면 신동리 사립문 (황헌만, 초가, 열화당 P75)
3. 그림 정선의 (인곡유거도)

#### 5. 담 : 울타리, 담장

곡담은 최고급 담장이며 담장의 중간 중간에 둥근 돌로 무늬를 놓는데 그 돌은 해, 달, 별의 일월성신(日月星辰)을 뜻한다.

꽃담은 화장(華牆), 화문담(花文牆), 화초담이라 하며 장식되어진 모양에 따라 분장(粉牆)<sup>1)</sup>, 영롱담(玲瓏牆)<sup>2)</sup>, 취벽(翠壁)<sup>3)</sup>이라 부르기도 한다. 여러 가지 채색으로 글자나 무늬를 놓고 치장하는데 담의 면 주위에 卍자, 亞자 또는 뇌문(雷文)<sup>4)</sup>, 초용(草龍) 등의 선을 두르고 그 가운데 십장생(十長生)<sup>5)</sup>이나 화초의 모양 등 민화적인 그림을 넣는다. 또 벽돌로 간단히 수(壽)나 복(福) 글자를 넣어 쌓기도 한다.

1) 분장 : 석회반죽으로 아름답게 바른 담장.

2) 영롱담 : 벽돌, 기와 등으로 구멍이 뚫어지게 쌓은 담. 영롱장.

3) 취벽 : 녹색의 암벽.

4) 뇌문 : 나선 또는 선분이 나선형으로 된 무늬, 번개무늬 혹은 곡두무늬라고도 함.

5) 십장생 : 오래 살아 죽지 않는다는 10가지 물체. 곤 해, 산 물, 돌, 구름, 소나무, 불로초, 거북, 학, 사슴을 말한다.



▲ 낙산사 곡담



▲ 경복궁 자경전 꽃담

## 6. 물 흐름 : 비천, 계간, 간수, 석간, 송간, 폭포



▲ 소쇄원 계류 폭포



▲ 전남 강진 다산초당 간수



## 7. 석조

석조는 큰 바위를 조금 가공하고 그 중앙은 크게 파서 물을 담아 마당에 놓아두는 석물(石物)이다. 물화는 돌절구로도 쓰이기 때문에 부엌 앞마당이나 부엌 뒷마당에 놓아둘 때도 있고 또 정원을 구성하는 소재의 하나로서는 사랑 마당이나 후정 등에 놓아두고 그 물기운을 쫓기도 한다.



▲ 창덕궁 낙산재 석조, 과석, 굴뚝이 어우러져 화계 하단에 위치



1. 공주 변죽동 석조 2. 부여박물관 석조 3. 성북동 서씨육씨대 석조  
4. 서울 장안평 석조(1) 고려시대로 추정 5. 서울장안평 석조(2)  
6. 경주 흥륜사지 석조

## 8. 우물

신라의 우물은 그 유구들이 경주에 여러 곳 남아있고 또한 우물에 얽힌 기록도 다수 남아있어 더욱 흥미롭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시조 박혁거세 출생과 연관된 계림의 나정(蘿井)과 혁거세왕비 출현에 관계된 알영정(閼英井)이 나오는데 알영정에서는 용이 나타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신라의 우물은 혁거세 육십년 용이 나타났다는 금성정(金城井), 소지왕(炤智王) 때 용이 나타났다는 추나정(鄒蘿井)이 있으며 김유신 장군댁의 재매정(財買井)이 있다. 재매정은 장군의 어머니 재매부인(財買夫人)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재매정에 얽힌 일화 중에 이러한 것이 있다. 선덕여왕 13년(644) 가을, 장군이 화급하게 전쟁터로 출정하는 길이라 집 앞을 지나면서도 들르지 못한다. 그래서 집 부근에 말을 세우고 시자(侍者)에게 명하여

우물에서 떠온 물을 마시며 「우리집 물은 아직 옛 맛이로고」라고 안심하며 전장으로 나갔다는 기록이 있다. 이 재매정은 현재 경주시에서 남쪽으로 문천(蚊川)언덕을 따라 북쪽으로 약 50m에 위치하고 있다.

국립경주박물관 뜰에 가보면 둥근 형의 통돌이거나 두 부분으로 짜여진 원형의 우물돌들을 여러 구 볼 수 있다.



▲ 신라의 우물들로 국립경주박물관에 모여 있다.



▲ 정음 김동수가 우물

## 9. 장독대



▲ 경북 최부자댁 장독대

## 10. 굴뚝

### 자경전 후원 십장생 굴뚝

경복궁 자경전의 십장생 굴뚝은 담장의 한 면을 한 단 앞으로 돌출시켜 흙을 구워서 만든 벽돌로 만들었다.

굴뚝의 벽면 중앙에 십장생 무늬가 새겨진 조형전(造形磚)을 배치하였고 그 사이를 회(灰)로 발라 화면을 구성하였다.

십장생 무늬의 주제는 해, 산, 물, 구름, 바위, 소나무, 거북, 사슴, 학, 불로초, 포도, 대나무, 국화, 새, 연꽃 등이며 둘레에는 학, 나티, 불가사리, 박쥐, 당초문 등의 무늬전을 배치하였다.

해, 바위, 거북 등 십장생은 장수, 포도는 자손의 번성, 박쥐는 부귀, 나티와 불가사리 등은 악귀를 막는 상서로운 짐승을 상징한다.

굴뚝 윗부분 역시 조형전으로 목조건물의 형태를 모방하였고 꼭대기에는 10개의 연가를 올려놓아 연기가 빠지도록 하였다.



▲ 경복궁 자경전에 있는 십장생 굴뚝

## 11. 화계

화계는 계단형태의 화단을 말하며 우리의 옛집은 그 입지가 풍수지리상 배산임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집 후면의 언덕을 깎아서 계단을 서너단 만들었다. 그 계단에 화초와 관목류 혹은 소교목을 심고 가꾸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 멋을 부려 괴석을 몇 점 놓기도 하고 장식문양을 새긴 석물을 놓기도 하였다. 이 화계는 집 뒤 즉 후원에 위치하고 있어 가옥의 가장 은밀한 곳에 만들어졌다.

아미산원은 화계로 된 정원으로 독특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구조물로는 ‘함월지(涵月池)’, ‘낙하담(落霞潭)’, 즉 달을 품고 있고 붉은 저녁 노을이 어리는 뜻의 석지(石池)가 있고, 장식 굴뚝은 화강석 기단 위에 붉은 벽돌을 쌓고 아름다운 색깔의 무늬를 새겨 넣었다. 각 면의 중심부 직사각형에 이 무늬를 배치하고 그 상·하에 작은 무늬를 끼워 넣었고, 화초와 동물과 새를 새겨 넣은 굴뚝을 4개 놓았다. 또 석분(石盆)에 심겨진 괴석들과 받침돌을 배치했다.



▲ 경복궁 아미산 정원 화계에 굴뚝, 괴석, 석조가 놓여있다

## 12. 마당과 정원식물

### 마당

마당은 건물의 기능을 보완하며 기능이 다양하고, 마당의 명칭은 이러한 기능이나 장소에서 이름을 따온다.

건물 안쪽 마당에는 바깥마당, 행랑마당, 사랑마당, 중문간마당, 안마당, 옆마당, 뒷마당이 있고, 건물 바깥쪽 마당에는 동네마당, 동네우물마당, 동네공동작업장, 마을 어귀에 있는 주로 느티나무 아래의 공공마당, 그 외 궁중의 공무용 마당(근정전, 인정전 뜰), 또 종묘정전마당(예식) 등이 있다.

조선시대 주택의 마당은 신분계급에 따라서 서민주택에서 상류주택으로 올라갈수록 상하, 남녀, 특히 위계질서에 따라서 엄격하게 공간이 구분된다.

서민주택의 마당은 앞마당이 주가 되고 규모가 다소 큰 경우 뒷마당을 두고 타작마당으로 사용하는데 종종 마을의 공동 옥외작업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류주택의 마당은 독립된 건물이 늘어남으로써 앞마당, 뒷마당, 옆마당 등 몇 개의 마당으로 구분된다. 그 기능은 서민주택과 별 차이가 없으나 앞마당이나 옆마당에 채소밭을 만들거나 과실수를 심고 사랑마당에는 화초를 심기도 한다.

상류주택의 마당은 행랑채, 사랑채, 안채, 별당, 사당 등으로 건물이 구분되어서, 담장과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각종 마당이 있다. 대문을 들어서면 행랑마당이 되고 중문간 행랑채를 지나면 안마당이나 사랑마당으로 연결된다. 행랑마당은 옥외 작업공간으로 안마당과 함께 빈 공간이고 사랑마당과 별당, 앞마당은 정원을 만들어서 꾸며놓는다. 사랑마당에는 담장을 따라 몇 그루의 나무를 심고 괴석을 심은 석분을 몇 개 배치하고 연못을 팔 수 없는 자리에는 석연지(石蓮池)를 설치하여 연을 키우는 경우도 있다. 별당의 앞마당은 꽃이 화사한 과수 등을 심는다.

## 조선시대 정원에 나무심기

### 수종과 장소에 따른 나무심기

장 소	종류, 금기	수 종
문 앞	좋은	회화나무, 문 주변에 2 그루의 대추나무
	금기	죽은 나무, 한 그루, 두 모양이 같은 나무
중정	좋은	화초류
	금기	큰 나무
정원 앞	좋은	석류나무, 서향화
	금기	오동나무, 파초
울타리 옆	좋은	동쪽 울타리 옆에 홍벽도, 국화
	금기	참죽나무, 椒林(초림, 산초), 薛荔(페려, 마삭나무)
우물 옆	금기	복숭아
집 주위	좋은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창
	금기	단풍나무, 사시나무, 가죽나무
집 안	금기	무궁화, 뽕나무, 자리공, 큰 나무, 상록수

### 방위에 따른 나무심기

방 위	종류, 금기	수 종
동쪽	좋은	복숭아나무, 버드나무, 벽오동, 홍벽도, 오얏나무
	금기	
남동쪽	좋은	
	금기	살구나무
남쪽	좋은	복숭아나무, 매화, 대추나무
	금기	자두
남서쪽	좋은	
	금기	큰 나무
서쪽	좋은	산뽕나무, 느릅나무, 대추나무
	금기	버드나무, 자두나무
북서쪽	좋은	대나무, 오동나무 3그루, 큰 나무
	금기	
북쪽	좋은	느릅나무, 벚나무, 개암나무, 진달래, 살구나무
	금기	자두나무, 동백나무, 봄동백, 영산홍, 왜철쭉, 치자나무, 석류나무, 월계화
북동쪽	좋은	대나무
	금기	큰 나무



## 나무심는 법

- 상록교목의 수가 극히 적고 낙엽활엽수가 주가 된다. 산림경제(山林經濟)에서는 소나무, 향나무, 대나무의 수형 및 심는 위치, 이식 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며, 집안에 <기독수동청(忌獨樹冬靑)>이라 하여 상록수를 심기 꺼려하였다. 낙엽활엽수에 의한 4계절의 뚜렷한 변화를 맞본다.
- 수간이 직간인 것보다 곡간인 것을 더 운치 있게 생각한다. 인위적으로 수형을 변형시킨 것은 인공미를 나타내지 않고 극도의 자연미를 표현하며 그런 형태가 상징하는 인고(忍苦)의 멋을 보기 위한 수법이다.
- 수관(樹冠)이 탑형인 것보다 타원형이 주가 된다. 열대지방 수목은 상방광선을 받아들이기 유리한 둥근 형태이고 한대지방 수목은 측방광선을 받아들이기 유리한 탑형이며 우리나라는 온대지방이므로 타원형이 대부분이다.
- 과일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양화소록에는 석류와 굴나무가 쓰였으나 조선시대의 산림경제에는 棗(대추나무), 李(자두나무), 杏(살구나무), 桃(복숭아나무), 梨(배나무), 柿(감나무) 등에 관해서 집안에서 심는 위치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중세에 풍비했던 유교에서 이용 후생을 위한 실용적 학풍발달의 영향인 듯하다.
- 화목의 종류가 많다. 고시조에서의 출현빈도를 보면 대부분 꽃이 주가 된다. 과일나무일지라도 복숭아꽃, 매화, 배꽃, 오얏꽃, 살구꽃처럼 꽃이 탐스러운 것의 출현 빈도가 크다.
- 한 품종에 여러 가지 꽃색이 있을 경우, 백색과 황색을 최고로 쳤다. 백색기호는 한민족이 백색을 사랑하는 백의 민족성 때문이라 본다. 황색은 우주만물인 오행의 중심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 산야에 야생초화의 이용이 적다. 임원십육지에 몇 종류 나타나며, 꽃이 매우 화려하다. 대부분은 薔(荊)이라 생각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 나무심는 기본 이론

- 음양의 조화에 맞춘 나무심기는 3/5의 양과 2/5의 음이 원칙상으로 가장 이상적인 결합이다. 음을 취할 때 집안의 습기를 중시하여 건물 가까이는 꺼려했다.
- 풍수지리원리에 따랐다. 주택지로서 지형이 적합치 않을 때는 수목을 적절히 심어서 지형의 불량에서 오는 불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비보의 기능이다.
- 식물의 생태적 특성에 따라서 심는 법  
<산림경제, 택목(宅木), 잡기(雜忌)>에 북쪽에 심기를 피하라고 한 동백, 春栢(춘백), 영산홍,

석류, 月桂(월계) 등은 모두가 내한성이 극히 약하여 중부지방에서는 노지에 월동 할 수 없는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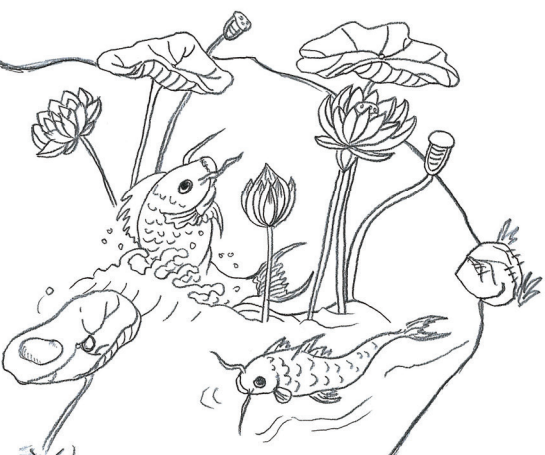
- 기능적으로 나무심는 법에서 우리나라의 풍향은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고 여름에는 남동풍, 남서풍이 불어서 남서쪽의 큰 나무는 여름의 시원한 바람만 막아줄 뿐이므로 나쁘다는 뜻이며, 북서풍을 막아주고 여름에는 하지의 강한 햇살이 북서쪽으로 힘껏 넘어가므로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기 때문에 좋다는 뜻이다.





# 전통 정원에 깃든 사상

허균 (한국민예미술연구소)







허균 (한국민예미술연구소)

## I. 전통 정원의 분류

현존하는 옛 정원(조선시대 정원)을 살펴보면 사대부나 왕공 귀족 등 상류층 사람들에 의해 조성된 경우가 다수다. 물론 일반 서민들 생활공간에도 정원이 있었으나 원형이 보존된 유례가 없어 실상 파악이 어렵다. 사대부 정원의 경우, 자의 또는 타의로 벼슬에서 물러난 후 낙향하여 꾸민 별서정원(別墅庭園)이 있으며, 지방관이 주민들과 함께 만든 향원(鄕園)도 있다. 창덕궁 후원이나 경복궁의 경회루, 향원정 일대의 정원처럼 궁궐 내에 꾸며 놓은 궁원(宮園)도 한국 정원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정자나 누대를 중심으로 한 산수정원(山水庭園)은 한국 정원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II. 전통 정원의 특성

금수강산이라 불리는 천혜의 환경 속에서 살아 온 한국인들은 자연의 리듬을 말없이 느끼고 수용하면서 자연이란 으레 아름다운 것,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생활과 조화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은연중 가지게 되었다.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은 그 자체가 훌륭한 정원 구실을 했기 때문에 정원을 꾸민다고 하여 수목이나 경물(景物)을 일부러 가져다 놓지 않아도 되었다. 꼭 필요한 경우라도 약간의 인공물을 들여 놓는 정도의 자연 순응적 조원(造園) 방식을 택했다. 이와 같은 조원 방식은 별서정원(別墅庭苑)이나 향원은 물론이고, 궁원(宮苑)에도 일관되게 적용되었다.

전통 정원 가운데서 특히 별서정원과 산수정원은 한국 정원의 특징과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들 정원이 지닌 두드러진 특징은 자연을 인문경관화(人文景觀化) 했다는 데에 있다. 담양의 소쇄원, 보길도 부용동 정원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이들 정원은 산세와 계류의 흐름, 바위와 수목의 상태 등 산천의 형국을 더듬어

서 경이 좋은 한 대목을 골라 약간의 정자를 짓고 나무와 돌을 정돈하는 수준에서 정원을 꾸몄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 보면 정원과 자연과의 경계가 모호하다.

특히 정자를 중심으로 하는 산수정원(임천정원이라고도 한다)은 별서정원보다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정자는 정(亭)이라는 글자의 의미가 말해 주듯이 자연 속에 잠시 머무는 장소이다. 정자는 대(臺)나 누(樓)에 비해서 구조가 간결하고 소박하며 대개 규모가 작다. 그러나 정자의 가장 큰 특징은 사방이 활연히 트여있어 주변의 자연경관을 막힘없이 감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옛 사람들이 “천태만상의 털끝만한 것도 시야에서 도망하지 못하니 무릇 먼 경치를 바라보는 데는 정자만한 것이 없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산수 간에 위치한 정자에 사람이 올라 주변의 풍광을 감상의 대상으로 삼을 때 자연은 감상자의 심정적 소유물이 되면서 홀연히 인문경관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 때 산이나 바위, 계곡에 ‘명경대’, ‘신선암’, ‘선유곡’ 등의 이름을 부여했다면 자연은 명실공히 정원의 성격을 띠게 된다. 물에 비친 붉은 단풍과 그 사이를 헤엄치는 물고기 떼,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공산에 걸린 달 등 시각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대숲에 이는 바람소리, 지저귀는 새소리 등 청각적 대상에 이르기까지 정자에서 감상할 수 모든 정원은 산수정원의 구성요소이자 감상의 대상이 된다.



그림1. 거연정. 산수정원.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이처럼 대자연이 정원화 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정자가 있고, 정자에 올라 자연 풍광과 교감하며 즐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한국 정원의 독특한 개념은 유럽을 비롯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등 감상할 만한 아름다운 자연이 적은 지역에서 형성된 가든(Garden) 개념, 즉 한정된 부지 내에 미관을 목적으로 분수·초목·돌·조각상 등을 인공적으로 배열하여 꾸민 장소의 개념과는 분명히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 Ⅲ. 전통 정원의 사상적 배경

옛 선비들에게 있어서 정원은 자연 풍광을 감상하고 즐기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세계와 욕망을 상징적으로 구현해 놓은 또 다른 생활공간이기도 했다. 정원의 배후에는 출처지(出處之義)라고 하는 유교적 생활철학, 우주의 존재 원리와 인간 본성을 궁구하는 성리학, 자연의 순리를 따름으로써 무위의 법

도를 체득하고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도가사상이 반영돼 있다. 뿐만 아니라 제약된 현실상황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생을 구가하려는 신선사상, 삶의 터전을 풍수적 명당으로 조성하여 벽사진경을 추구하려는 현실적 욕망도 투영돼 있다.

**1. 유교 생활 철학** - 출처지의(出處之義)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생활철학이었다. 선비가 대부로서 세상에 나아가 관인의 입장에 있을 때에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 힘쓰지만, 세상이 자신의 이상을 받아주지 않으면 과감히 관직에서 물러나 처사의 입장에서 대의와 명분을 지킨다는 것이 출처지의의 본령이다. 이러한 생활 철학은 별서정원의 조성 동기와의도 연결되어 있다. 예컨대 보길도 부용동 정원과 담양 소쇄원을 비롯하여 영양 서석지 정원, 담양 다산초당 정원, 봉화 청암정 정원 등의 별서정원이 그 예에 속한다.

**2. 성리학적 사유** - 성리학이란 그 뿌리를 유학에 두고 있는 것으로, 격물치지(格物致知)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주의 생성과 구조, 인간 심성의 구조, 사회에서 인간의 자세 등에 관하여 깊이 사색함으로써 형이상학적인 철학사상을 전개했다. 성리학과 관련된 요소들은 방지원도형(方池圓島形) 연못이나 당호, 편액 등의 내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함안 무기연당 풍육루에 걸려 있는 ‘敬’자 편액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림 무기연당 풍육루의 ‘敬’자 현판

**3. 도가사상** - 도가사상은 노장사상의 핵심인 도(道)와 무위(無爲)의 개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도는 삼라만상의 궁극적인 원리를 의미한다. 도는 모든 존재의 근원적 모태이기 때문에 그 근원으로 돌아가면 인간의 우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도가사상가들의 기본 생각이다. 한편 무위란 인간의 가치관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도법자연을 인정할 때 현실적으로 무위는 자연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 사상은 정원수의 식재, 경물의 배치 등 정원 조성 전반에 걸쳐 크게 영향을 미쳤다.

**4. 신선사상** - 신선사상은 인간에게 주어진 수명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유로운 생을 구가하면서 불로불사의 생을 누리려는 인간 욕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에서는 영혼과 육체를 구별하여 육체를 초극한 영생을 구하려고 하지만, 전통적으로 동양 사람들은 사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불로장생을 추구했다. 도

교에서는 그런 경지에 오른 사람을 지인(至人) 또는 진인(眞人)이라 하고, 여기에 주술적·종교적 요소를 가미하여 신선이라 부른다. 이와 관련된 정원 속의 경물로서는 삼신산(三神山), 무산십이봉(巫山十二峰) 등이 있는데, 남원 광한루원의 삼신선도와 자라섬, 경주 안압지의 무산십이봉 등이 유명하다.

5. 풍수사상 - 풍수사상은 음양론과 오행설을 기반으로 땅에 관한 이치, 즉 지리(地理)를 체계화시킨 전통적 논리구조이다. 기본적으로 길한 것을 추구하고 흉한 것을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구성은 산·물·방위·사람 등 네 가지의 조합으로 성립된다. 풍수사상은 도읍이나 마을 터를 정할 때는 물론 정원 터 잡기, 건물과 정원수의 배치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결국 길한 터를 점지하고 그 터를 명당화 함으로써 가문의 부귀와 자손의 번창을 추구하려는 전통적 기복사상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 IV. 정원 속의 경물과 상징적 의미

### 지상에 구현된 선계 - 삼신산

삼신산이란 신선사상이 창조해 낸 이상향으로, 봉래, 방장, 영주의 세 선산(仙山)을 일컫는다. 현존하는 전통 정원 중에서 삼신산 관련 유적을 찾아본다면, 청평사 문수원정원 영지(影池), 경복궁 경회루 연지, 경



그림1. 문수원정원 연못의 삼신산(물속의 세 개의 바위)

주 임해전지 연못, 남원 광한루원 연지, 안동 풍산읍의 체화정 연지, 화순 임대정 연지의 삼신산 등이 있다. 그리고 연못은 아니지만, 창덕궁 낙선재 후원에 있는 ‘瀛州(영주)’라는 글씨가 새겨진 석조(石槽)도 신선사상과 관련된 유적이다.

삼신산 혹은 삼신선도(三神仙島)에 대한 관념은 중국 고대 제(齊)나라의 팔신(八神) 제사로부터 형성되었다. 제나라는 중국 북동 지역 산둥(山東)반도 일대에 자리 잡고 있

었던 나라로서 해안의 명산(名山)을 대상으로 한 제사를 지내는 풍속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산에 제사지냈던 무당들은 삼신산이 바다 가운데 있다고 믿었다.

《사기(史記)》〈봉선서(封禪書)〉에 의하면, 삼신산은 멀리서 보면 구름처럼 보이다가 가까이 다가가면 금시 물밑에 있고, 더 가까이 다가가면 바람이 몰고 가버려 다다를 수가 없다고 한다. 또한 삼신산에는 불로초가 자라고, 하늘을 나는 선인(仙人)들이 살고 있으며, 초목과 금수는 모두 희고, 황금과 백은(白銀)으로 지은 궁궐이 있다고 한다.



옛 사람들은 삼신산을 생사의 굴레를 벗어나 원천적 자유를 누리며 영생하는 신선들의 거처로 믿었고, 그들에게 있어 삼신산은 환상의 세계요 신령스러운 선계였다. 한정된 수명과 현실적 한계를 절감한 사람들은 그래서 보다 자유로운 세계에서 신선처럼 영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염원했다. 정원속의 삼신산은 바로 그러한 이상과 욕망의 상징물인 것이다.



그림2. 광한루 연못 가의 자라석

### 이상세계에의 동경 - 연못가의 거북이

현존 정원 유적 가운데 연못가에 거북이(혹은 자라)가 있는 곳은 남원 광한루 연지와 창덕궁 후원 청심정 앞 빙옥지(氷玉池)이다. 크기나 모양은 다르지만 머리를 물을 향해 두고 있는 모습은 같다.

거북이는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는 동물이지만 낙서(洛書)를 등에 지고 올라온 신귀(神龜)로서 전설 속에 나타나기도 하고, 십장생의 하나로 널리 애호되기도 했다. 그런

가 하면 별주부전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비석의 귀부처럼 용생구자(龍生九子)의 하나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마디로 옛 사람들의 관념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북이는 평범한 갑각류 중 하나가 아니라 초월적 이상세계에 사는 신비로운 동물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거북이가 현실 공간에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은 커다란 상서(祥瑞)요, 길상의 조짐이었던 것이다. 광한루와 청심정 거북이는 바로 그러한 상징성을 가진 거북이다. 이 거북이가 주변 일대를 현실을 초월한 이상향으로, 상서와 길상이 충만한 선계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그림3. 봉화 석천정 계류 중의 지주암

### 선비의 높은 기상과 굳은 지조 - 지주암(砥柱巖)

경상북도 봉화의 청암정 남쪽 계곡의 수명루 앞을 흐르는 계류 속에 “砥柱巖(지주암)”이라고 새긴 큰 바위가 있다. 지주(砥柱)는 중국 허난성 섬주(陝州)에서 동쪽으로 사십리 되는 황하 중류 가운데 서있는 바위로, 위쪽이 벼루처럼 평평하고 모양이 기둥처럼 생겼다 해서 그렇게 불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바위를 애호한 것은 그 기묘한 형태가 아니라, 천하 만물을 쓸고 가는 황하의 격류 속에서도 꿋꿋이 서있는 고고한 자태였다.

은나라 의열(義烈)이었던 백이·숙제의 무덤 근처를 흐르는 항류(抗流) 가운데도 “砥柱中流”라고 새긴 바위가 서있다. 수명루 주인 역시 수명루 앞 계류의 중류에 우뚝 솟은 바위에 ‘砥柱’라는 글자를 새겼다. 그는 처음 이 바위를 보고 황하 격류 속의 지주암을 연상했을 것이고, 백이·숙제의 항류의 지주암도 생각했을 것이다. 수명루 앞의 바위는 이 글자가 새겨지는 순간 평범한 바위에서 지조와 절개의 상징형으로 탈바꿈했다. 수명루 주인은 계류의 바위에 단 세 글자를 새겨 수명루 일대를 백이·숙제가 은둔했던 수양산(首陽山)과 같은 곳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그림4. 봉화 석천정 계류 중의 지주암

### 우주 원리와 군자의 면모 - 연못

전통 정원의 연못 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방지원도형 연못이다. 이것은 네모난 연못의 중심에 둥근 섬을 조성해 놓은 형태로 되어 있다. 유적으로는 창덕궁 후원 부용지, 경복궁 향원지, 남양주시 궁(宮)집, 강릉 선교장의 활래정, 그리고 논산 윤증고택, 강진 다산초당, 담양 명옥헌 정원의 연못 등이 있다.

방지원도형 연못의 형태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이라고 하는 고대 동양인의 우주관이 투영돼 있다. 천원지방이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는 뜻이지만, 이 말 속에는 음양·천지·건곤·상하·동정(動靜)이라는 우주 만물의 존재와 운행의 이치가 함축되어 있다. 말하자면 방지원도형 연못은 바로 지상에 구현한 우주적 이미지인 것이다.

연못은 연지(蓮池)라는 말 자체에 이미 답이 나와 있듯이 연꽃과 밀접하게 관련 돼있다. 옛 정원, 특히 궁궐정원이나 낙향한 사대부들의 별서정원 연못에는 연꽃이 없는 경우가 드물었다. 왕궁 사대부들이 연꽃을 애호했던 이유는 연꽃이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인 군자(君子)의 면모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연꽃이 진흙 속에서 나왔으면서도 그에 물들지 않는 청정함을 칭송했고, 잔물결에 씻기면서도 오염하지 않는 것을 상찬했다. 줄기 속은 비어있고, 겉은 곧으며, 덩굴로 자라거나 가지(枝)를 치지 않고, 멀수록 더욱 맑은 향기를 사랑했고, 우뚝이 깨끗하게 서 있어 멀리서 바라 볼 수는 있지만 함부로 가지고 놀 수는 없는 군자의 자태를 사랑했다. 연못의 연꽃은 조선 유학자들의 감정이입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 주거 공간을 산수화(山水化) 하는 - 괴석(怪石)

서양이 훌륭한 암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위를 정원의 경물로 삼는 일이 없고, 오히려 동양의 사람들





그림5. 창덕궁 연경당 입구의 두꺼비 장식 괴석

이 바위를 애호했던 까닭은 서양에는 돌을 애착하는 마음이 없고 동양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위는 겉보기에 그저 평범할 뿐 아무 관심 끌만한 요소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옛 사람들은 그 평범하고 특별한 경관이 아닌 것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아내었다.

괴석 애호는 상황에 따라서 호사로운 취미로 매도되기도 하지만 정원에서 괴석이 차지하는 지위는 매우 높다. 자연계의 꽃과 풀이 자기 본래의 의지를 지키지 못하고 계절과

타협하거나 굴복 하지만, 바위는 그런 것을 초월해 태초의 견고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벗 삼을 가치가 있었던 것이다.

괴이한 모양을 한 괴석이건 매끈한 수석이건 간에 지금의 돌의 모습은 갖은 풍상을 겪으면서 가장 안정된 상태로 된 것이다. 돌은 그렇게 항구 불변의 안정된 상태에 다다르기까지 온갖 군더더기를 제거해 왔다. 약한 곳은 깎이고, 모난 곳은 다듬어져 더 이상 덧붙여진 것이나 모자라는 것이 없다는 점, 이것이 옛 사람들이 돌을 사랑했던 까닭이다.

옛 사람들은 괴석을 정원에 끌어다 놓고 그 것에서 대자연의 세계를 보면서 그 정취를 즐겼다. 돌에 낀 푸른 이끼나, 어쩌다 떨어져 그 위에 얹힌 낙엽에서 깊고 오묘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비가 와서 돌을 타고 흐르는 물줄기를 보고 넓고 깊은 산수 자연의 풍경을 본다. 땅에 드리워진 돌 그림자에서 산 그림자의 그윽한 청취를 느끼고, 뚫린 구멍에서 깊고 유현한 동굴을 생각하였다.

이렇듯 괴석은 자연에 귀의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쳐 일으키고 상상력을 발휘케 하여 대자연 속으로 끌어들이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괴석은 한 날 석분에 심어진 괴이한 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은 생활공간 전체를 산수화(山水化)하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 공자의 행단 - 은행나무

사대부들이 정원수로 세한삼우나 사군자를 즐겨 심었던 것은 그의 외형적 아름다움보다도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을 닮은 생태적 속성 때문이었다. 추운 겨울에도 푸름을 잃지 않는 기상, 잔설 속에서도 꽃 피우는 청빈과 은일, 이러한 자태를 사랑하여 그들은 정원수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은행나무를 심은 뜻은 이와 달랐다. 서울 문묘 대성전 주변, 지방의 서원과 향교, 그리고 영양 서석지 정원, 아산 맹사성 고가 정원 등 사대부들의 정원에서 은행나무를 볼 수 있는데, 모두 공자(孔子)의 인품과 사상을 흠모한 유학자들이 마음의



그림6. 영양 서석지 정원의 은행나무

징표로 심은 것이다.

《장자(莊子)》 어부편에, “공자가 지유(緇雥)의 숲 속에 나아가 행단에 앉아 쉴 때 제자는 독서하고 공자는 거문고를 타고 노래했다.”라는 대목이 나온다. 북송 건흥연간에 공자의 강단 옛터에 단을 쌓고 주변에 은행나무를 심어서 행단을 복원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청나라 초 고염무는 행단은 높은 대(臺)의 우의적 표현일 뿐 실재하지는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진실이 어떻든 장자 이래로 행단고

슬(杏壇鼓瑟)은 공자의 강학의 고사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옛 유학자들은 공자를 유교철학의 비조로 추앙했으며, 공자의 학행과 덕행은 성찬의 대상이었다. 그들이 정원에 은행나무를 심었던 것은 공자의 행적과 사상을 떠올리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원의 은행나무는 주관적 관점에 일단 여과된 은행나무이므로, 그것은 나무이면서 나무가 아닌 것이다.

## V. 끝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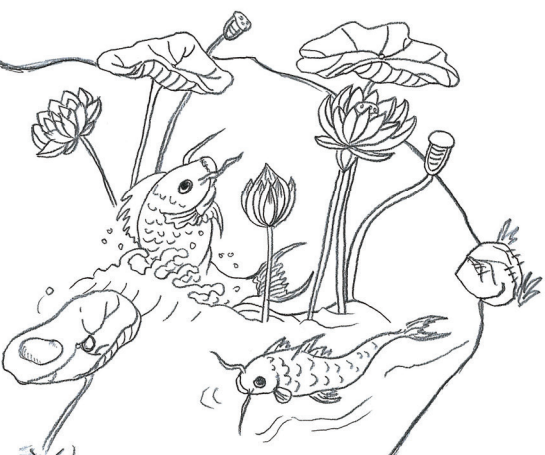
우리 전통 정원의 경물의 선택과 배치에 있어서는 주객이 합치되는 곳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통 정원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 나무나 경물, 또는 지형은 그 형태나 속성이 일단 선비들의 사상이나 생활철학, 또는 미의식에 의해 여과된 것이다. 객관과 주관의 통합은 결과적으로 상징성을 가져오게 된다. 이점은 소규모의 개인 정원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을 대상으로 하는 산수정원에도 적용돼 있다.

그러나 뭐라 해도 한국 전통 정원 전체를 지배하는 일관된 흐름은 자연에 순응하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한국적인 자연주의라 할 것이다. 이점은 자연 경관을 주(主)로 삼고 인공 경관을 종(從)의 위치에 두려고 했던 조원 태도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인이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자연의 리듬을 느끼고 수용하면서 살아오는 과정에서 체득된 자연친화적 성정의 발로라 할 것이다.



# 옛 그림에 표현된 정원

송 희 경 (이화여자대학교)







송 희 경 (이화여자대학교)

## I. 조선후기 문인의 감성 공간, 정원

정원이란 집에 딸린 뜰이나 동산, 즉 흙, 돌, 물, 나무 등의 자연재료와 인공물 및 건축물에 의해 미적이고 기능적으로 구성된 특정 구역을 뜻한다. 인류는 고대부터 정원을 가꾸면서 무한한 꿈과 낭만을 누려왔다. 조선시대에도 적지 않은 사택과 별서가 조성되면서 정원이 마련되었다. 특히 조선후기 문인들은 서울에 기거하면서도 속세를 떨치고 강호에 은둔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연을 닮은 저택과 정원을 조성했다. 명대 유명한 정원 조성가인 계성(計成, 1582-1642)도 “여유 있는 삶의 공간은 도회지 밖의 산수가 아름다운 호젓한 곳에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한적한 도회지 교외에 주거를 마련하는 것이 차선책이다.”라고 풀이하였다.<sup>2)</sup> 물질로 가득 찬 도시 한 복판에 자신만의 은거지를 만들어 ‘성시 속의 산림’을 구가하고 싶었던 것이다.

문인들이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기 위해 노력한 증거는 그들이 탐독하고 인용한 중국의 서적에서도 목격된다. 서유구(徐有榘, 1764-1845)는 중국 당대 문장가인 이고(李翱, ?-844)의 「산거의 일곱 가지 빼어난 조건(山居七勝論)」과 명대 문인화가인 진계유(陳繼儒, 1558-1639)의 「산속 삶의 네 가지 방법(居山四法)」을 인용하여, 노년의 여생을 잘 보내기 위한 집의 조건을 서술했다.<sup>3)</sup> 이고가 제시한 일곱 조건은 괴이한 바위(輕石), 기이한 산봉우리(奇峰), 흘러내리는 냇물(走泉), 깊은 연못(深潭), 오래된 고목(老木), 아름다운 풀(嘉草), 신선한 꽃(新花) 등이다. 이를 갖추기 위해 조선후기 문인들은 도성내의 아름다운 택지를 선택하여 집을 짓고 후원에 별서의 누정을 세웠다.

1) \*\* 이 글은 『은지논총』22집(은지학회, 2009)에 실린 「연못이 있는 정원-조선후기 원지 원림화의 유형과 그 함의」를 재구성, 보완한 것이다.

2) 안대희, 「18·19세기의 주거문화와 상상의 정원-조선후기 산문가의 記文을 중심으로」, 『震檀學報』97(震檀學會, 2004), 115쪽 참조.

3) 徐有榘, 『衡泌鋪置 總論』, 『怡雲志』1, 『林園十六志』, 서울대학교 규장각본, 奎6565(김성우, 안대희, 「고문헌해제 : 「임원경제지」, 「이운지」 卷第一」, 『꾸밈』 75(꾸밈사, 1988, 12), 109쪽.

서재 주변에 불로와 장생을 상징하는 학을 키우고, 괴석을 배치했으며, 파초, 대나무, 소나무 등을 심었다. 인공 연못과 마당에 놓인 바위는 넓은 바다와 커다란 암산의 축소판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화려한 꽃과 풀을 마당이나 화분에 심어 정성껏 키웠다.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 놓았으니 가꾸고 보전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조경학과 관련된 수많은 서적을 중국에서 수입했고, 이를 토대로 정원 내부의 구성과 관리법을 서술한 책을 발간했다.<sup>4)</sup> 이 시기 문인들이 지닌 정원 조성에 관한 관심은 조선전기 문인들의 태도와 사뭇 다르다. 조선전기에는 사물에 철리를 투영한 관물론적 자세를 표명했다면, 조선후기에는 사물 그 자체의 아름다움에 집중하였다. 아름다움에 심취하다 보니, 개인적 감성과 취향이 이입되었다. 꽃에 미쳐서 평생을 꽃 수집에 몰두한 유박(柳璞, 1730-1787)은 자신의 정원인 백화암(百花菴)에 사시사철의 꽃을 백가지나 구해서 마당에 심었고, 송이 송이마다 남다른 미감을 부여했다.

조선후기에 활성화된 사택과 정원의 축조는 또 다른 취미와 일상을 탄생시켰다. 우아한 정원에 아름다운 화목을 수집하여 서재를 꾸민 다음, 그 곳에서 글을 쓰고 차를 마시면서 서화를 감상하고 이를 품평한 것이다. 이러한 풍조는 명대 문인 사이에 확산된 도시 문예 활동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다. 중국의 학자인 나대경(羅大經, 1196-1242)은 산속 은거지에서 긴 여름날을 소일하는 방법을 ‘산정일장(山靜日長)’이라는 글로 기술했다. 그가 제시한 산거의 일상은 낮잠 자기(午睡), 차 달이기(煎茶), 독서, 휴식, 소박한 밥상(山妻修飯), 서화 감상, 산책 등이다. 당시 문인들에게 이러한 취미는 인품과 학식을 갖춘 선비라면 마땅히 지녀야 할 습관이며, 성시 속의 산림을 즐기기 위한 필수 행위였다.<sup>5)</sup> 자신의 서재나 자택을 축소화된 자연이라 여기며 아름다운 후원을 조성했고, 이곳에서 고품격의 서화고동, 아름다운 화목, 희귀한 수석을 수집하여 감상하는 일을 최고의 멋이라 생각한 것이다.

## II. 상상 속의 정원과 그 시각화

조선후기 문인이 정원에 부여하는 감성은 다양하다. 정원을 사적인 호사 취미의 공간이라 여기거나, 우주만물의 보편적 원리가 내재된 자연의 축소판이라고도 보았다. 특히 도시에서의 은둔을 꿈꾸는 이들에게 정원은 세상과 연결되면서도 동떨어진 시은(市隱)의 공간이었다. 실재 경관을 토대로 마음속의 정원인 심원(心園)과 상상의 정원인 의원(意園)을 구체적으로 설계했고 각 부속물에 의미를 부여했다. 심원과 의원의 시각화는 조선후기 회화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이 시기 정원그림에 중국의 유명한 정원이나 옛 성현이 기거한 자택의 이미지가 차용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선(鄭敼, 1676-1759)

4) 정동오, 『한국의 정원』(민음사, 1986), 272쪽 참조.

5) 屠隆 著, 權德周 譯, 『考槃餘事』(乙酉文化社, 1986), 3쪽.



이 중국 강서성의 명산인 여산의 초당을 그린 <여산초당도(廬山草堂圖)>이다.<sup>6)</sup> 정선은 <여산초당도>에 독특한 진경화법을 구사하여 이상경과 현실경의 조화를 추구했고 그 안에 조선의 선비를 배치했다. 즉 가장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자연경을 차용하여 상상 속의 정원을 시각화하되 이를 당대의 화법으로 변안하여 조선의 낙원을 창출한 것이다.

상상의 정원은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의 <지상편도(池上篇圖)>에서 다시 재현된다. 이 작품은 백거이(白居易, 772-846)의 문학작품인 『지상편(池上篇)』을 토대로 그려진 정원도이다. 강세황은 그의 나이 36세 되던 1748년 4월 유경종(柳慶種, 1714-1784)의 사촌인 유경용(柳慶容, 1718-1753)을 위하여 취암서당(鷺巖書堂)에서 <지상편도>를 그렸다. 강세황이 행초서로 쓴 <지상편>에 따르면 백거이의 유거지에는 정자와 연못이 주를 이루었고 그가 이전의 항주와 소중 등지에서 얻어 온 학, 돌, 연꽃 등이 있었다. 강세황은 백거이의 유거를 환상적으로 도해하면서 상상 속의 정원을 시각화했다. <지상편도>는 강세황이 안산에 머물 때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다. 당시 강세황과 그의 처남인 유경종, 유경용은 『지상편』과 같은 풍요로운 정원을 소유할 수 없는 상태였다. 어쩌면 강세황은 그들의 잃어버린 꿈을 보상하기 위해 백거이의 정원을 빌려 아늑한 의원을 그렸는지 모른다. 상상의 정원을 감상하며 서로의 처지를 위로하고 세상에 고통을 치유한 것이다.<sup>7)</sup> 이렇듯 조선 후기 문인들은 평소 소유하고 싶은 공간을 작품 속에 투영하여 별천지를 연출하면서 고사(高士)의 전원을 차경(借景)하고 자연을 축소하여 가상의 원림을 완성했다. 그리고 그 낙원 안에 우아한 풍류를 즐기는 은자를 배치하여 동시대인으로 의인화하면서 비루한 현실의 나를 잠시라도 잊고자 했다. 과거에 존재한 상상 속의 정원을 '현재'로 끌어들이며 그림으로 재현했고, 정원 경물에 자신의 내면을 투영하여 또 다른 감성을 표출한 것이다.

### Ⅲ. 문인사대부, 정원에서 모이다.

아회(雅會)란 문인 사대부의 자유롭고 사적인 교제이며, 같은 취미를 공유하거나 서로의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소규모의 모임을 뜻한다. 조선의 문인은 벗과 즐기는 풍류를 최고의 멋이라 여겼다. 고상하고 우아한 군자의 삶을 지향하고 은일 고사들의 취미를 향유하려면 곁에 반드시 친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원에서 고사의 행적을 모방하여 친구들과 함께 시 짓기, 그림 그리기, 거문고 타기, 차 달여 마시기, 바둑 두기, 골동품 감상을 했다. 아회의 장소로 개인의 취향이 반영된 화려한 사택의 정원은 매우 적합한 공간이었다. 아름다운 꽃, 싱그러운 나무, 무색 무미 무취의 바위, 하늘 주변 경관을 투영한 연못가

6) 정선의 <여산초당도>를 당시 사대부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원림의 모습으로 간주한 논문에는 조규희, 『사대부의 원림과 회화』(『그림에게 묻은 사대부의 생활과 풍류』, 국사편찬위원회, 2007)가 있다.

7) 김동준, 『王世貞 코드로 읽는 生志銘과 意園』 18세기 安山권 文人들의 불우와 위안의 예술적 형상화, 『한국한문학회연구』52(한국한문학회, 2013), 153쪽.

지 있는 정원이 친한 벗과 어울리기에 가장 적합한 유상지였던 것이다.

정원 모임의 목적은 다양했다.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살구꽃이 처음 피면 모이고, 복숭아꽃이 처음 피면 모였다. 한 여름에 참외가 익으면 모이고, 가을이 되어 서늘해지면 서지에서 연꽃을 구경하러 모였다. 국화꽃이 피어도 모이고, 겨울에 큰 눈이 내리면 다시 모이고, 한 해가 저물 무렵에 화분에 심은 매화가 꽃을 피우면 모였다.”고 진술했다.<sup>8)</sup> 개인 저택에서의 모임 중에서 즉흥적으로 열린 정원아회가 있다. 바로 와룡암소집(臥龍庵小集)이다. 1744년 어느 여름날 서화 감식가이자 수장가인 김광수(金光遂, 1699-1770)의 서재 와룡암(臥龍庵)에서 갑작스런 모임이 결성되었다. 하루는 김광국(金光國, 1727-1788)이 김광수의 집에서 향을 피우고 차를 달여 마시면서 그림과 글씨를 품평하는데, 느닷없이 하늘이 시커멓게 흐려지더니 소나기가 쏟아졌다. 이 때 심사정(沈師正, 1707-1769)이 김광수의 집으로 홀연히 들어왔다. 마침 그 동네를 지나다가 비가 쏟아지자 다급히 친구의 집을 찾은 것이다. 그림과 글씨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우연히 한자리에 모였으니 그냥 헤어질 리 없다. 게다가 비가 그치자 순간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정원풍경이 마치 미불(米芾, 1052-1107)의 그림처럼 신비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심사정은 탄성을 지르며 종이와 붓을 급히 찾았고, 여름 빗줄기를 머금은 들의 풍경을 즉석에서 그렸다. 바로 <와룡암소집도>이다.<sup>9)</sup>

또 다른 정원아회 장면에는 이인상(李麟祥, 1710-1760)의 <북동아회도>가 있다. 서얼 출신인 이인상은 서울에서 하급관리로 일한 1747년까지 수많은 벗들과 교류했다. 틈만 나면 오찬(吳瓚, 1717-?), 이윤영(李胤永, 1714-1759), 송문흠(宋文欽, 1710-1752) 등과 만나, 함께 글을 읽고 문장을 짓곤 했다. 갑자년(1744)에는 지금의 창덕궁 서쪽 지역에 해당하는 계산동 오찬의 자택에서 독서 모임이 열렸다. 이인상은 즉석에서 독서 모임을 그렸고, 김순택(金純澤, 1714-1787)은 그림 옆에 『북동아회도후지』를 적었다.<sup>10)</sup> 또한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전반까지 활동한 이유신(李維新)은 사랑채, 모정, 연지에서 모인 사계절의 정원아회를 각각 <포동춘지(浦洞春池)>, <굴헌납량(橋軒納涼)>, <행정추상(杏亭秋賞)>, <가현관매(可軒觀梅)>로 표현했다. 봄의 장면인 <포동춘지>는 사각형의 연지가 있는 정원 아회이고, 가을 장면인 <행정추상>은 모정 아회이며, 여름과 겨울 장면인 <굴헌납량>과 <가현관매>는 사랑채 아회이다. 이유신은 정원을 장식한 갖가지 화분, 수석, 수목 등을 화사하게 채색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감을 나타냈다.

김홍도(金弘道, 1745-1806)는 자신의 정원에서 이루어진 소박한 아회를 추억했다. 1784년에 제작된 <단원도(檀園圖)>는 1781년 창해옹(滄海翁) 정란(鄭瀾)과 강희언(姜熙彦, 1710-1784), 김홍도가 진솔회(眞率會)를 모방하여 김홍도의 자택에서 모인 사건을 기념한 그림이다. 강희언은 1781년 청화절(淸和節)

8) 丁若鏞, 『竹欄詩社帖序』, 『與猶堂全書』 13, 허경진, 『다산 정약용 산문집』 (한양출판, 1994), 114-115쪽 재인용.

9) 朴孝恩, 『朝鮮後期 문인들의 繪畵募集活動 研究』 (弘益大學校 碩士學位 論文), 1999, 205-206쪽.

10) 조규희, 『17, 18세기의 서울을 배경으로 한 문회도』, 『서울학연구』 16(서울시립대학교부설 서울학연구소, 2001), 57쪽.

에 김홍도의 사랑채를 방문했고, 김홍도는 강희언이 세상을 떠난 뒤, 자신의 기량을 인정해준 노스승과의 조출한 만남을 기억하기 위해 <단원도>를 손수 그렸다.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며 그린 상상의 아회도인 셈이다. <군현도(群賢圖)>에서도 파초와 괴석이 어우러진 정원에서 그림을 감상하며 금을 연주하는 아회인과 차를 끓이는 동자도 그렸다. 울타리 안쪽에는 파초와 바위를, 그 옆에 서안 위에는 향로, 준형 필통, 책 등을 배치했다. 바로 단원의 서재에 모아 둔 그의 애장품들이다. 개인의 감성이 담긴 수장품은 친한 벗과의 어울림을 연결해 주는 공감의 고리가 된다. 이렇듯 김홍도는 이미 고인이 된 옛 벗과의 어울림을 회상하여 과거 모임을 우아한 ‘고사적’ 정원 풍경과 함께 재현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우정, ‘고(古)’와 ‘금(今)’의 공존, 어렵사리 수집한 완상물에 투영된 감성이 상상과 기억을 위한 아회도를 탄생시킨 셈이다.

#### IV. 옛 그림에 표현된 정원의 함의

누정과 연못, 계절을 알려주는 꽃과 나무, 인간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다양한 수집품은 당대 지식인이 소망한 이상적인 정원의 구성물이다. 소유자의 미감이 반영된 정원은 개인 취향이 발현된 감성 공간일 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친밀한 교류가 이룩되는 유상지이며, 지성, 감각, 취미, 예술이 소통하는 공감의 장이다. 조선후기 정원그림에서도 개인의 감성과, 아회에서 공유된 공동의 정서를 동시에 엿볼 수 있었다. 조선후기 문인이 정원문화를 통해 표출한 감성은 도시 속의 은둔, 진귀한 물건에 대한 집착, 이를 벗과 함께 즐기 고자 하는 예술적 욕망이다. 이러한 정서는 현재 이루지 못한 꿈의 실현, 세상에서 받은 상처의 치유, 과거에 대한 추억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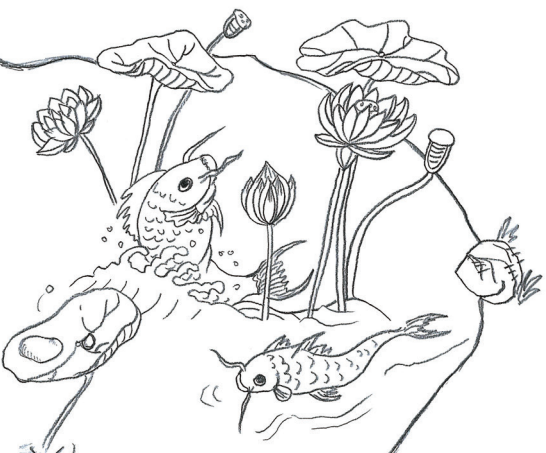
따라서 조선후기 정원 그림은 당시 문인의 감성을 읽어낼 수 있는 문화적 코드이다. 아름다운 집을 지어 꽃과 나무를 심고 연못을 파는 작업과, 이곳에 친한 벗을 불러 즐겁게 노니는 당시의 문인 문화가 완벽하게 재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성에는 문인이 지닌 지적 호기심, 문화적 교양, 일상의 미학, 상상과 희망 등이 융합되어 있다. 조선후기 정원그림에서 아름다운 공간의 향유와 이를 통한 풍류가 발견되는 이유이다.





# 창덕궁 후원의 경영과 건축

이강근 (서울시립대학교)









이 강 근 (서울시립대학교)

조선왕조의 수도 한성의 중심은 정궁인 경복궁이었으며, 도성 안의 모든 시설은 경복궁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배치되었다. 新都의 경영을 맡았던 사람 가운데 아무도 한성 안에 궁궐을 하나 더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태종이 한성 주변의 母岳과 한성을 비교한 결과 한성으로 환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나서도, 정궁인 경복궁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이 새로운 궁궐을 건설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 도성 안에 그것도 정궁으로부터 얼마 멀지 않은 거리에 ‘離宮’이란 미명하에 새로운 궁궐을 지은 태종의 숨은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궁궐이 정치의 중심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궁궐 앞에 수많은 政廳과 官廳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설은 물론 정궁 남쪽대로 좌우에 도열하는 것이 고대 국가 이래의 오랜 전통이다. 그런데 이궁이라 하면 정궁에서의 정치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天災地變으로 정궁에서의 호화로운 생활을 지속하기에는 백성들에게 미안한 경우 등에만 잠시 정궁을 피해 있기 위하여 즉 避宮하기 위하여 지은 궁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궁 앞에는 정청이나 관청을 마련할 필요가 전혀 없다.

정궁인 경복궁을 피하여 잠시 거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궁을 지었다면 이는 이궁의 본래 용도에 합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궁할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왕실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관료나 친인척의 집을 피궁 장소로 삼을 수는 있으나 이는 장구한 계책이 될 수 없으므로 어차피 이궁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이었다. 그러나 이궁 건설 시기를 하필이면 한성 환도 시점으로 정한 데는 특정한 이유가 있었다.

즉 태종의 왕위 계승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던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태종이 ‘왕자의 난’을 두 차례 겪고 겨우 왕위에 올랐을 때 수도는 개경이었다. 혼란기의 정치 상황을 마무리하고 왕권강화라는 정치적 難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경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또 한성으로 환도하는 마당에 骨肉相殘의 비극이 얹힌 경복궁으로의 入宮을 피하려면 새로운 궁궐이 필요했다. 이 시기에 집권 관료층의 관심을 천도와 새로운 궁궐 조성으로 돌려 정치적 안정을 꾀하려는 목적과 흥흥해진 민심을 대규

모 토목공사를 통하여 바로잡으려는 정치적 의도도 작용하였다.

그 결과 ‘이궁’이란 이름의 궁궐을 도성 안에 하나 더 지음으로써 왕권의 현실적 기반을 공간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단순히 피궁하기 위하여 이궁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다. 이궁이 지어짐으로써 한성의 북반부는 이궁과 정궁 두 개의 궁궐이 각각 응봉과 백악을 배경으로 위세를 갖추어 동서로 布陣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1405년에 이궁이 완성되자 곧 1406년에 경복궁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1411년에 명당수를 끌어들이고 御構를 뒀으며, 1412년에는 원래 있던 작은 누각을 헐고 경회루와 연못을 대규모로 조성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 중국 사신의 접대에 대비하도록 한 사실 등을 보더라도, 태종이 경복궁을 꺼려서 거처하지 않으려고 이궁을 지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태종이 왕권강화를 최대의 정치적 목적으로 삼아 외척세력과 공신세력마저 완전히 제거한 다음, 왕-의정부-육조의 國政體裁를 왕-육조의 直啓制로 전환시켜 왕권과 중앙집권을 크게 강화하였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게다가 아들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난 뒤에도 창덕궁 바로 곁에 수강궁을 짓고 거처하며 여전히 병권을 장악한 채 도성 안 여러 곳에 수많은 이궁을 건설하였다는 사실은 창덕궁을 창건한 이유가 비단 경복궁이 싫어서만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준다.<sup>1)</sup>

## 1. 조선전반기의 후원 경영과 건축

### (1) 태종대의 후원 경영과 건축

1405년에 서둘러 낙성된 창덕궁에 태종이 줄곧 머물러 있게 되자, 이후에는 누각(廣延樓와 澄光樓)과 침실 및 연못을 조성하고, 후원에 소나무를 심고 정자를 세우는 등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였다. 또 어구를 파서 물길을 끌어들이어 정전 앞쪽에 돌다리를 놓았으며, 돌다리 앞쪽에 궐문을 세우고 그 어귀에는 下馬標木까지 세우는 등 정궁에 버금가는 격식을 갖추어 나갔다.

즉, 1406년에는 眞殿인 仁昭殿(태조와 태조비 신의왕후의 신주를 모신 건물)과 佛堂을 후원 지역에 지었고,<sup>2)</sup> 1408년에는 연못, 1411년에 정자(解溫亭, 14년 6월에 愼獨齋로 개칭)가 조성되었는데, 누각은 왕이 답답한 마음을 후련하게 풀 수 있도록 휴식하거나 신하들과 연회를 열어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정자는 홀로 휴식과 사색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성되었다.

또 1408년에는 후원에 뽕나무를 심어 비빈과 후궁들로 하여금 양잠의 중요성을 알도록 일깨우고, 1410년에는 지형에 맞추어 소나무를 심어 궁원의 풍광을 아름답게 가꾸었다.

1) 태종은 태상왕과 상왕의 거처로 덕수궁과 인덕궁을 각각 지어 바쳤으며, 아홉 곳의 이궁을 도성 안팎에 건설하여 거처를 옮겨 가면서 살았다. 이 가운데 避災를 위하여 지은 이궁은 餘慶坊本宮이었다. 『서울六百年史』第一卷, 1977,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19~226쪽 참조)

2) 『서울特別市史 古蹟篇』1963, 서울特別市史편찬위원회, 187~188쪽.

## (2) 세조대의 후원 경영과 건축

창덕궁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세조때(1455~1468)였다. 세조는 5년(1459) 9월 5일에 후원에 못을 파게 하고 그 옆에 闕武亭을 세웠던 것같으며<sup>3)</sup> 열무정 부근에서 4곳의 샘물을 찾아내었다. 열무정의 위치에 대해서는 조선후기인 정조때 그 자리에 奉謨堂을 세웠다고 하며 봉모당이 주합루 서남쪽에 있었 던 점으로 보아 열무정과 네 우물이 있던 곳까지가 후원의 영역이었던 것 같다.<sup>4)</sup> 그러나 이 일을 시작으로 하여 왕 7년 11월 24일부터 궁역 확장을 계획하고 8년 2월부터는 궁성확충공사를 시작하였다.

태종때 이궁으로 창건되어 꾸준히 시설을 보완해 갔던 창덕궁은 세조가 후원을 조성하고 궁역을 확장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더구나 성종이 재위기간 전체를 창덕궁에 거처하면서 동쪽에 창경궁을 만들어 정치 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창덕궁과 창경궁은 조선전기에 이미 하나의 궁궐처럼 사용되면서 경복궁을 대신해 나갔던 것이다.

## 2. 조선후반기의 후원 경영과 건축

### (1) 인조대의 후원 경영과 건축

反正의 소용돌이 속에서 왕위에 오른 인조는 창덕궁이나 창경궁의 계속된 화재로 재위 10여 년 동안 경운궁이나 경덕궁에 거처하였다. 그러나 창덕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왕 10년에는 일시적으로 창덕궁에 거처하기도 하였으나 말년인 왕 25년에 이르러서야 창덕궁의 중건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이런 와중에도 후원의 경영에 몰두하여 왕 14년(1636)부터 왕 25년(1647)에 걸쳐 끊임없이 정자를 짓고 원림을 조성하였다. 즉 1636년(인조 14)에 歎逝亭(→逍遙亭)·雲影亭(→太極亭)·청의정과 玉流川, 1640년에 聚奎亭, 1642년에 翠微亭(현종 5년 개수하고 觀德亭으로 고침), 1643년에 竹亭(→深秋亭), 1644년에 六面亭(→尊德亭)·碧荷亭(숙종때 淸讌閣으로 고침), 1645년에 醉香亭(숙종 16년에 喜雨亭으로 개칭), 1646년에 팔각정, 1647년에 聚勝亭(←樂民亭)·觀豐閣 등이 차례로 조성되었다.<sup>5)</sup> 인조가 이렇듯 후원 경영에 몰두한 것은 병자호란으로 입은 치욕과 복잡한 심사를 달래기 위하여서가 아니었을까? 후대의 왕들도 인조가 경영한 원림에 와서 “萬機를 다스리는 여가에 샘물과 흐르는 물을 보고 마음을 함양하곤 한다”고 하면서 인조의 원림 구성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였다.<sup>6)</sup>

3) 闕武亭이 언제 세워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은데 주남철 교수는『비원』1990, 대원사, 12쪽에서 이러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4) 『宮闕志』昌德宮誌, ‘奉謨堂’條 참조. 봉모당은 『東關圖』에도 주합루 서남쪽에 그려져 있으나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구선원전 서쪽, 규장각 바로 뒤쪽으로 옮겨졌다. 『東關圖型』, 고종년간 『宮闕志』 참조.

5) 이상의 내용은 宮闕志 昌德宮誌의 해당 항목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며, 괄호 안의 이름 뒷날 개칭된 것이다.

6) 『宮闕志』昌德宮誌 太極亭條의 숙종 어제 『上林三亭記』 참조.

## (2) 숙종대의 후원 경영과 건축

숙종대에 후원에는 왕 18년에 영화당 일곽과 애련정 일곽이 조성되고, 왕 33년에는 애련정 북쪽에 滌惱堂을 건립하여 현종대에 경영된 어수당 일곽의 원림을 완결지었다. 또 후원 곳곳에 정자를 지었는데 왕 14년에는 淸心亭, 왕 15년에는 靈鼉亭, 왕 17년에는 凌虛亭을 차례로 지어 나갔다. 이리하여 숙종대의 원림 조성을 끝으로 창덕궁 후원은 주합루 구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던 것이다.

## (3) 정조대의 후원 경영과 건축

정조대에는 즉위년에 후원 안 회정당 옆에 규장각과 서향각을 짓고, 왕 5년(1781)에는 규장각 학사들의 속직처인 이문원을 도총부 자리에 설치하는 등 숙종대에는 궁궐밖 종부시에 있었던 규장각을 궁궐 안으로 끌어들이어 右文政治를 표방하며 왕권강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4) 순조대의 후원 경영과 건축

「東闕圖」에 표현되어 있으나 1833년에 영춘헌을 짓기 위하여 헐린 天地長男宮 일곽은 세자의 거처로 중희당 바로 옆에 있었다. 그리하여 중희당 일대는 창덕궁과 창경궁의 경계 지역이면서 순조대에 세자 익종이 거처하고 공부하던 곳으로서 훗날 代理聽政(1827년~1830년)의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익종은 창덕궁 안에 觀物軒·待鍾軒·演慶堂·倚斗閣 일곽·田畝(1826년) 등 많은 시설을 경영하였다.<sup>7)</sup> 특히 후원의 의두합과 연경당은 대리청정 시기에 전자는 독서처로 창건한 것이고,<sup>8)</sup> 후자는 1828년에 珍藏閣 옛터에 進宴處로 사용하려고 특별히 창건한 건물이다.<sup>9)</sup> 당시 연경당의 모습은 「東闕圖」와 『慈經殿進爵整禮儀軌』의 圖說「演慶堂圖」(1828년 2월)에 잘 묘사되어 있으며, 이로써 주택 형식의 현존하는 연경당은 적어도 현종대 이후에 새로 지어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 3. 창덕궁의 배치형식과 특징

경복궁의 건축가는 고전적 배치규범인 三門三朝나 前朝後寢을 철저하게 수용해서 창업한 조선왕조의 왕

7) 「宮闕志」昌德宮誌」 해당항목 참조. 단, 관물헌의 창건 시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성정각의 북쪽에 위치했다는 점, 익종의 「觀物軒四詠詩」가 남아 있다는 점을 토대로 익종이 세자 시절에 창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8) 「宮闕志」昌德宮誌」倚斗閣條에서는 익종이 세자 시절에 예전의 독서처를 改建하였다고 적고 있어서 수리를 한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1826년에 쓴 「翼宗御製 倚斗閣上樓文」의 존재로 이 건물이 1826년부터 1827년 사이에 새로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9) 「東國輿地備攷」京都 宮殿 昌慶宮 演慶堂條 참조. 純祖에게 존호를 올리는 경축을 당하여 마침 집이 이루어졌으므로 연경이라 이름하였다고 설명되어 있으나, 尊號儀禮를 거행할 장소로 창건된 것으로 해석해야 옳다.(이강근, 「東闕圖」建築文化」 1997년 9월호)

실 및 관료기구에 걸맞는 새로운 궁궐을 만들었다. 그러나 창덕궁의 건축가는 처음에는 離宮을 짓기에 적합해서 선택된 터 위에 변경된 설계조건(정궁의 모든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그 결과 창덕궁은 경복궁에서는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특징을 나타내게 되었다.

경복궁이 위 두 가지 원칙을 충실하게 적용하여 남북중심축선상에 중요 건물을 배치하고 좌우 대칭으로 회랑을 둘러 막은 것과는 달리, 창덕궁은 정전, 편전, 침전의 위치 관계가 변경되어 있다. 형식 규범을 지키려고 하였으나 남북방향으로 배치되지 못하고 동북방향으로 펼쳐져 나간 모습은 지형상의 제약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해야 옳겠지만, 이처럼 지형에 따라 배치축선을 달리 하면서 조화로운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배치술이 필요했을 것이다.

地脈의 방향에 맞추어 건물의 坐向을 결정하는 풍수지리적 배치기법을 선호한 결과, 단위 건물군(정전인 인정전의 일곽, 편전인 희정당의 일곽, 침전인 대조전일곽)의 배치는 정형성을 띠고 있으나, 각각의 건물군은 坐向을 달리 하고 있어서 배치축선은 서로 평행을 이루지 않았다. 직교좌표계에 의한 격자형 배치가 아닌 것이다. 그 결과 각 단위 공간을 연결하는 부분 즉 인정전 일곽과 희정당 일곽의 접속 부분 및 인정문과 진선문 사이는 비정형적 공간으로 되어 있고, 희정당 일곽과 대조전 일곽의 접속 부분은 축선이 어긋나 있다. 물론 정문인 돈화문부터가 정전과 축을 달리 하면서 비스듬하게 놓여 있고 진입 동선도 한 차례 꺾여 있다.

비정형적 공간단위의 적극적 활용, 어긋난 축선의 설정, 지형의 고저 차이에 따른 건물 매스의 크기 조정 등에서 보이는 ‘배치기법’은 이른바 ‘한국적’인 특징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건축군이 일제 침략기에 훼손되어, 창덕궁 전체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어려운 만큼, 배치기법에 대한 이해도 평면적 속성에 대한 지적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 중에도 외부공간의 구성이론에 입각한 새로운 해석은 창덕궁의 배치기법에서 읽어내야 할 예술적 효과와 조형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 준다.<sup>10)</sup> 한편, 후원에서도 자연 지세를 그대로 살려 건축과 자연의 조화를 얻어 내는 뛰어난 造園術을 구축하였음을 보여 준다.

10) 안영배, 『韓國建築의 外部空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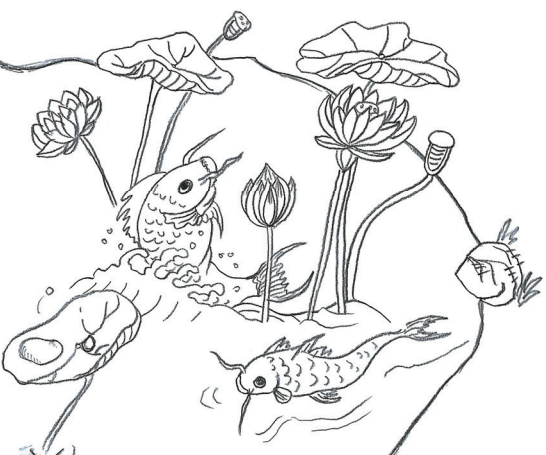






# 조선 궁궐의 원림 문화

박희성 (서울학연구소)





# 조선 궁궐의 원림 문화



박 희 성 (서울학연구소)

庭, 園, 苑

苑의 기능

조선의 宮苑 : 경복궁 후원/창덕궁 후원

禁苑의 확장, 東郊

庭, 園, 苑

**庭**

집채의 계단 앞마당이 이룬 공간(堂階前)

뜰, 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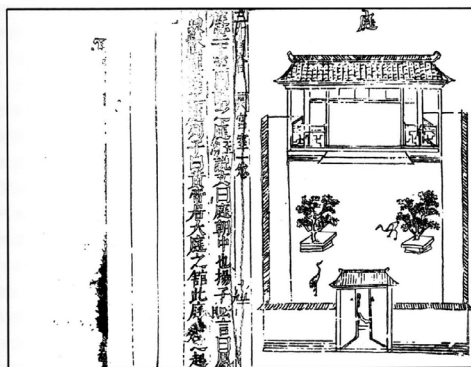
건축과 더불어 이루어짐

陽의 공간

화분, 화단, 화계

방형의 못

괴석



## 庭, 園, 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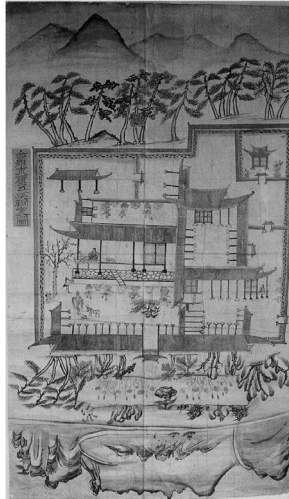
### 園

울타리(口) 안에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린 것처럼 치렁치렁한 장식(藁)이 들어 있는 형상을 묘사

用籬芭環園, 種植蔬菜花木的地方  
과일과 채소를 심고 키우는 장소(圃), 생산공간

택지 선정 : 背山臨水

택지 조성 : 뜰과 동산(庭園)



구례, 윤조루

## 庭, 園, 苑

### 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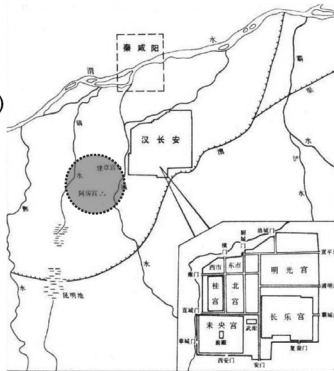
고대, 진귀한 동물을 기르거나 식물을 키우던 곳  
제왕의 화원

최초의 苑

: 중국 상림원(上林苑)  
진(秦) 시황 조성(아방궁)  
한(漢) 무제 수복, 확장  
9,000여 평

禁苑  
宮苑  
後苑

秘苑



진 원양, 한 장안 평면, 서안

秦漢長安城圖

## 苑의 기능

### 苑

이상향

봉래/방장/영주, 三神山 조성  
고래(鯨魚)를 조각, 바다 상징  
불노장생 염원



진 시황의 난지궁(蘭池宮), 아방궁유적지, 시안



아방궁도, 월휘, 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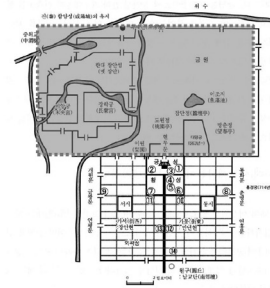
## 苑의 기능

### 苑 방어공간

청, 경신공원, 북경



청, 이화원, 북경



태조원(太廟園)  
도시계획과 향토 의례의 중심축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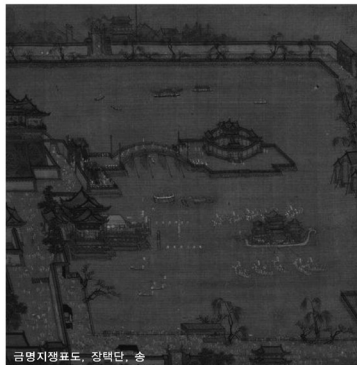
- ① 동궁
- ② 서방궁
- ③ 관학정(동쪽)과 중서정(서쪽)
- ④ 태조당(조광왕)과 우조당(조광왕)
- ⑤ 관학정(동쪽)과 우조당(조광왕)
- ⑥ 태묘(조광)
- ⑦ 태사(조광)
- ⑧ 태조원의 향사(향사)인 선왕사(향사)
- ⑨ 장안원의 향사인 보국사(保國寺)
- ⑩ 관학정(동쪽)과 중서정(서쪽)
- ⑪ 태조당(조광왕)과 우조당(조광왕)
- ⑫ 관학정(동쪽)과 우조당(조광왕)
- ⑬ 태묘(조광)
- ⑭ 태사(조광)
- ⑮ 태조원의 향사(향사)인 선왕사(향사)

그림 4 태조원의 향사(향사)인 선왕사(향사)

당, 장안도 평면, 서안

## 苑의 기능

### 苑 정치공간: 권위와 위상의 표현



금명지정표도, 강택단, 송



이화원, 조주거리, 북경



이화원, 만수신, 북경

## 苑의 기능

### 苑 여가공간: 유락, 휴식, 감상



터구도, 장가미정



원명원, 북경



이화원, 석방, 북경



당 격구도, 중국 현대



## 苑의 기능

**苑** 여가공간: 유락, 휴식, 감상

이화원, 대희루, 북경



## 苑의 기능

**苑** 여가공간: 유락, 휴식, 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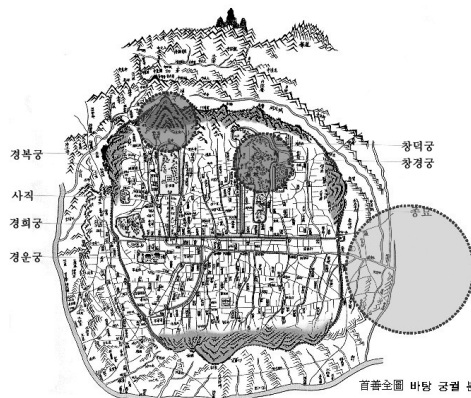


당, 화경지, 서안 근교



청, 피서산정(말하진), 승덕

## 조선의 宮苑



首善全圖 바탕 궁궐 분포 © 홍순민



## 조선의 宮苑

▷ 동궐(東闕)~창덕궁과 창경궁  
▷ 북궐(北闕)~경복궁  
▷ 서궐(西闕)~경희궁 (경운궁: 행궁 → 서궁)

▷ 별궁(別宮)~왕이 왕이 되기 전에 살던 집  
왕실 소유  
왕실에서 필요한 대로 사용

▷ 행궁(行宮)  
- 왕이 외출 시 머무는 임시 거처  
(군현의 관아의 집 두어 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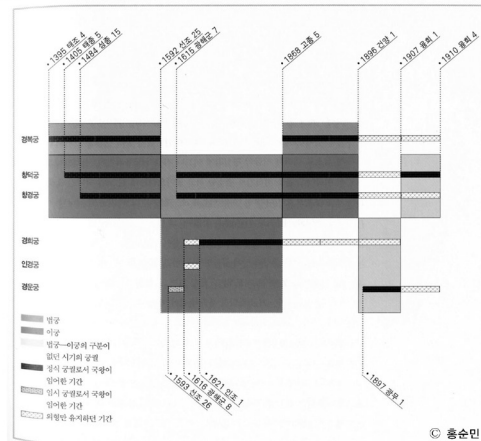
▷ 법궁과 이궁(法宮, 離宮)  
- 왕이 임하여 사신,  
으뜸 되는 궁궐을 법궁  
언제 어떤 목적으로 옮겨가기 위한  
제2의 궁을 이궁



한성도 宮苑 부분 © 홍순민

## 조선의 宮苑

### 양궐체제



© 홍순민

## 景福宮

이성계 한양 천도 직후 궁궐 조성 착수, 1395년 9월 낙성  
3문3조 cf. 5문3조(주례/고궁기)

내전: 왕과 왕비의 공식 활동과 일상적인 생활공간  
대전(大殿)(왕)과 중궁전(中宮殿)(왕비)

편전: 왕이 주요 신료들을 만나 공식적인 회의를  
여는 건물

외전: 왕이 공식적으로 만나 의식

연회 등 행사를 치르는 공간

외전의 중심은 정전(正殿) 혹은 법전(法殿)

국가의 공식적인 의식을 거행하는 곳

동궁: 세자의 활동공간, 대전의 동편에 배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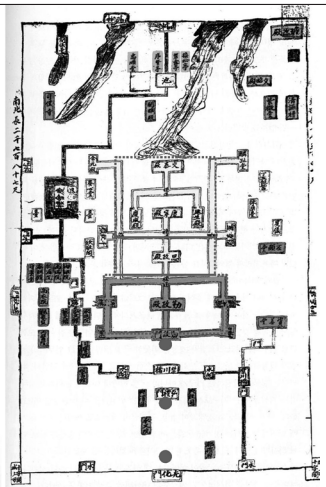
후원: 정원이며 휴식공간

과거시현, 군사훈련, 종친모임,

내농포(內農圃)

궐내각사: 궁궐 안에 설치된 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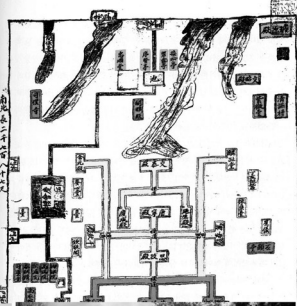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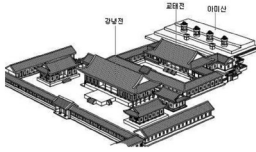
궐외각사: 궁궐 정문 앞 궁궐 인접한 곳에 설치된 관서



입진왜란 이전 경복궁 ©홍순민

## 景福宮

내전: 왕과 왕비의 공식 활동과 일상적인 생활공간  
대전(大殿)(왕)과 중궁전(中宮殿)(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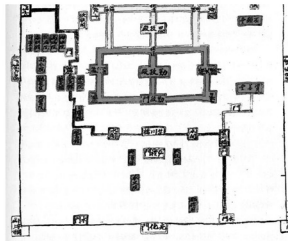


## 景福宮

편전: 왕이 주요 신료들을 만나 공식적인 회의를 여는 건물

외전: 왕이 공식적으로 만나 의식  
연회 등 행사를 치르는 공간  
외전의 중심은 정전(正殿) 혹은 법전(法殿)

조정(朝庭): 조정의 앞마당  
국가의 공식적인 의식을 거행하는 곳



근정전, 경복궁



사정전, 경복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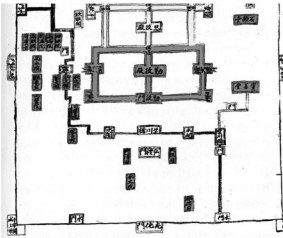
## 景福宮

편전: 왕이 주요 신료들을 만나 공식적인 회의를 여는 건물

외전: 왕이 공식적으로 만나 의식  
연회 등 행사를 치르는 공간  
외전의 중심은 정전(正殿) 혹은 법전(法殿)

조정(朝庭): 조정의 앞마당  
국가의 공식적인 의식을 거행하는 곳

궐내각사: 궁궐 안에 설치된 관서  
(빈정, 정청, 대청, 승정원,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경복궁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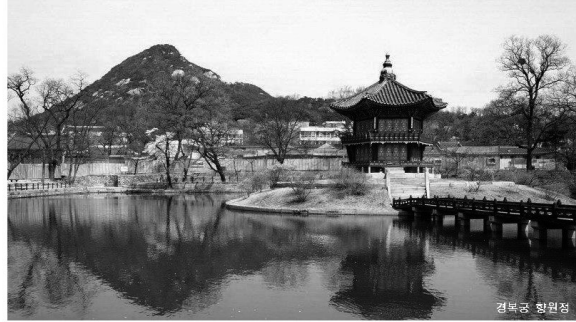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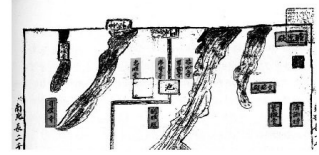


경복궁 경회루

## 景福宮

후원: 정원이며 휴식공간  
과거시합, 군사훈련, 종친모임, 내농포(內農圃)

궐외각사: 국가기관의 관서로 궁궐 정문 앞  
궁궐과 인접한 곳에 설치된 관서  
(의정부, 육조, 사헌부, 비변사, 한성부 등)



경복궁 향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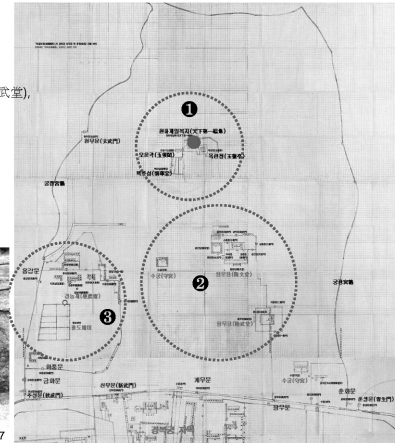
## 景福宮

고종 5년(1868) 후원 확장  
대한제국기 상당 부분 훼손

- ❶ 열병(閱兵) 및 교련(教練) 구역  
: 수궁(守宮), 용문당(隆文堂), 용무당(隆武堂),  
금위군직소(禁衛軍直所)
- ❷ 원상과 휴식 구역  
: 오운각, 옥연정, 백화실
- ❸ 친경(親耕) 구역  
: 경농재, 밭도배미
- 天下第一福地 (刻字)



북경도형, 1901~1907



## 昌德宮·昌慶宮 (東闕)

창덕궁: 태조 이궁으로 조성, 1404~1405, 왕의 공간  
창경궁: 수강궁 옛터, 성종 14년(1483) 대비들을 모시기 위한 새 별궁 건설, 왕후/대비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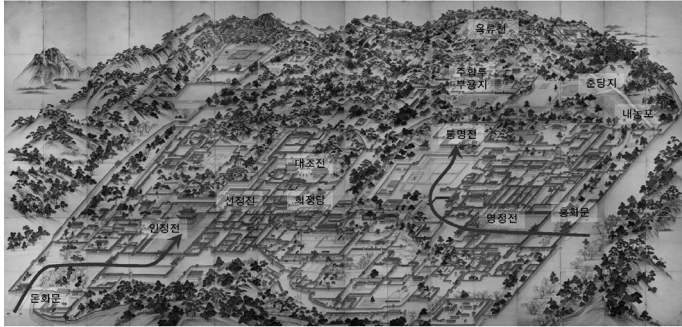
통일도, 1827~1833(순조), 고려대박물관 소장



## 昌德宮・昌慶宮 (東闕)

창덕궁: 태조 이궁으로 조성, 1404~1405, 왕의 공간

창경궁: 수강궁 옛터, 성종 14년(1483) 대비들을 모시기 위한 새 별궁 건설, 왕후/대비의 공간



통렬도, 1827~1833, 고려대박물관 소장

## 昌德宮・昌慶宮 (東闕)

### 동물을 기르거나 방목

세조10년(1464) 8월 13일, "사복시(司僕寺)의 말 10필을 창덕궁 후원에 방목하다.

세조11년(1465) 9월 14일, "창덕궁 후원에 범이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북악에 가서 표범을 잡고 돌아오다."

세조12년(1466) 5월 12일, "경상도관찰사 할우치가 흰 사슴 2마리를 바쳤는데,

서울에 이르자 사슴이 털이 빠지고 다시 누웠고 붉은 빛까지 되었다.

임금이 흰 사슴이 아니라고 여기어 창덕궁의 후원에 내놓아 기르게 하다.

### 방어공간



## 昌德宮・昌慶宮 (東闕)

### 이상향



## 昌德宮 · 昌慶宮 (東闕)

### 정치공간

중종33년(1538) 9월 12일, 왕이 인정전에 나아가 詩題를 내고  
춘당대에 나아가 무과시험을 보여서 9명을 뽑다.

중종39년(1544) 5월 3일, 비가 오지 않으니 모화관의 못가와 경회루,  
창덕궁 춘당대에서 기우제를 지내도록 하다.



춘당대 주변, 동궐도



영화당 앞 춘당대, 창덕궁 후원

## 昌德宮 · 昌慶宮 (東闕)

### 정치공간

인조17년(1639), 4월16일, 임금의 춘당대에 나아가 활쏘기와 포쏘기를 시험 보다.  
시험 성적이 좋은 자를 뽑아 성적에 따라 차등을 두어 상품을 내린다.

정조16년(1792) 3월 18일, 수레를 타고 춘당대에 나아가 과녁을 설치하고 각신(閣臣)과  
승지와 사관(史官)을 한편으로 만들고 시위(侍衛)하는 여러 신하들을 한편으로 만들어  
차례대로 짝을 지어 활을 쏘게 하고 끝난 뒤에 과일을 하사하여 먹게 하였다.



춘당대 주변, 동궐도



영화당 앞 춘당대, 창덕궁 후원

## 昌德宮 · 昌慶宮 (東闕)

### 정치공간

관덕정은 영화당 동쪽에 있으며...남쪽에는 잠단이 있는데 성종3년(1472)에 채상단(槩桑壇)  
옛터에 지었고 공해왕후가 항상 이곳에서 잠례(寐禮)를 행하였다. <궁궐지>

선잠단, 도성의 북교에 위치 c.동교  
지세가 기울고 토질이 척박, 桑林조성 어려움

성종13년(1482), 9월 1일, 후원의 땅이 넓고 빈 곳이 많으니,  
내년 봄에 여러 관사로 하여금 뽕나무를 심도록 하라.

중종24년(1529), 왕비가 내명부와 외명부를 거느리고 창덕궁의 후원에서 친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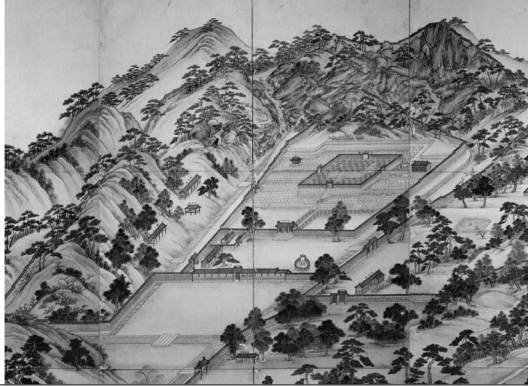


춘당지 일원, 동궐도

## 昌德宮·昌慶宮 (東闕)

### 정치공간

皇壇



## 昌德宮·昌慶宮 (東闕)

### 정치공간

영조4년(1728), 7월7일, 임금이 어수당에 나아가 친히 도정(都政)을 행하다.



어수당 일대, 동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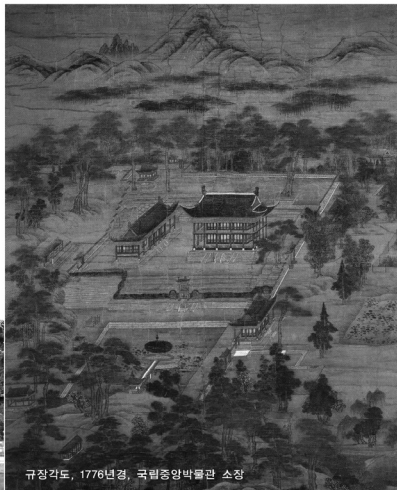


무신천정계첩, 1727년,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昌德宮·昌慶宮 (東闕)

### 정치공간

정조즉위(1776) 9월25일.  
창덕궁 금원 북쪽에 규장각을 세우다. 위는 다락이고 아래는 마루이며, 어진과 어제, 어필, 보택, 인장을 봉안하다.  
남쪽에 주합루란 편액을 걸다.



규장각도, 1776년경,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昌德宮 · 昌慶宮 (東闕)

### 유락공간

인조12년(1634) 9월 9일, 임금이 어수당에 술상을 차려놓고 세자만 시중하도록 하다. 정묘년 변란 이후 어수당이 거의 퇴락하였는데, 임금이 거처를 옮긴 뒤로 곧바로 개수토록 하다. 또 열무정(關武亭) 가에 못을 파고 10여명을 태울 수 있는 화선을 만들어 띄워 뱃놀이를 하다.



어수당 일대, 동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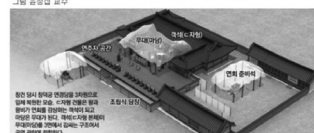
## 昌德宮 · 昌慶宮 (東闕)

### 유락공간

연경당, 본래 연회장소



연경당에서 서면 연회 모습을 추상해 복원한 그림. 앞쪽에 조형사(이)에서 복원하였던 대영의 과거 조형이 가능하다. 조형 건물과 조형 공간을 살펴볼 수 있다. 연경당 복원을 하고자 한다.



연경당에서 서면 연회 모습을 추상해 복원한 그림. 앞쪽에 조형사(이)에서 복원하였던 대영의 과거 조형이 가능하다. 조형 건물과 조형 공간을 살펴볼 수 있다. 연경당 복원을 하고자 한다.



## 昌德宮 · 昌慶宮 (東闕)

### 유락공간

인조14~25년(1636~1647), 인조 14년에서 25년 사이에 창덕궁 후원에 많은 정자와 원림을 조성하다. 인조14년 탄서정(歎逝亭)과 운영정(雲影亭), 청의정(淸漪亭)을 짓고 어필로 옥류천(玉流泉)이라 새기다...취규정, 취미정, 축정, 육면정, 벽하정 등등



옥류천 일원, 창덕궁



## 昌德宮 · 昌慶宮 (東闕)

### 유락공간

정조17년(1793) 3월20일, 상이 내원(內苑)에서 꽃 구경을 하려고 시임과 원임의 각신과 아울러 그들의 자제들을 부르고, 또 일찍이 승지나 사관을 지낸 사람 약간 명을 특별히 불러서 39명의 숫자를 채웠는데, 이는 대체로 이 해가 계축년이고 이 달이 늦봄이어서 난정(蘭亭)의 계모임을 모방하는 뜻에서였다. 여러 신료들에게 명하여 내원의 여러 경치를 마음껏 둘러보게 하고 옥류천(玉流泉)이 굽어도는 곳에 이르러 멈추어서 술과 음식을 내리고 각기 물가에 앉아 잔을 기울이고 시를 읊게 하였다. 그리고 상이 진(進)나라 사람들의 난정 모임에서 지은 시부(詩賦) 사언(四言) · 오언 두 편을 여러 신료들에게 명하여 자신의 소장에 따라 짓게 하고 저녁이 되어서야 파하였다. 그리하여 한 때에 태평 시대의 훌륭한 일이라고 전해졌다.



소흥, 절강성, 중국



平城京, 東院庭園, 奈良



포석정, 경주



## 昌德宮 · 昌慶宮 (東闕)

### 유락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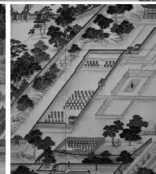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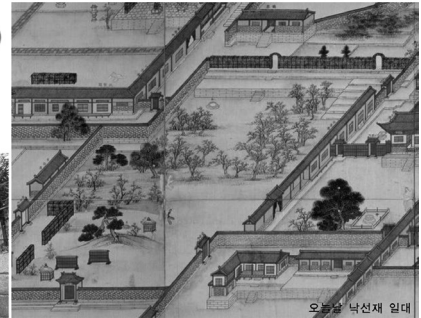
벚놀이, 경물 감상(괴석, 화분, 시간/계절)



## 昌德宮·昌慶宮(東闕)

### 생활·생산공간

과수원, 장독대



신정전  
서북쪽  
자경전  
동쪽  
종명전  
서, 남쪽

## 昌德宮·昌慶宮(東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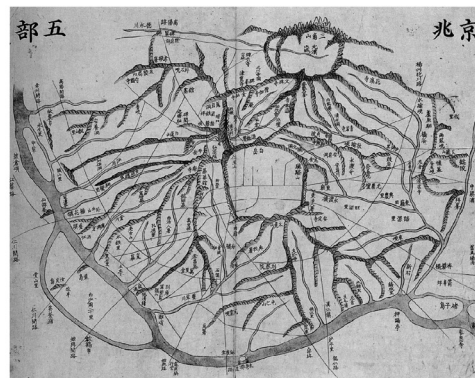
### 생활·생산공간

내농포(內農圃), 궁중납품을 목적으로 한 채소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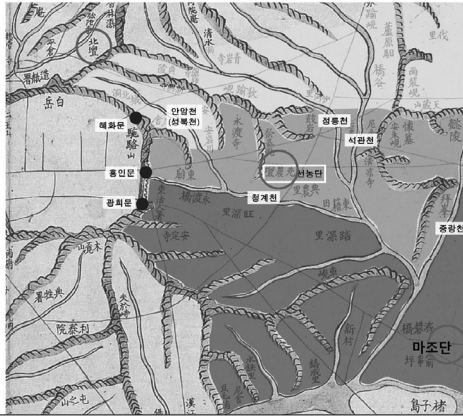
춘당지 일원, 동월도

## 禁苑의 확장, 東郊



58. 京兆五部(《大東方輿全圖》) 彩色雕寫本, 19世紀 末期, 30.6×40.2cm,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Kyōngjo-ohbu. Map of Five Districts of Seoul in Taedong Bangjo-chondo. Manuscript map in color.  
Late 19th century. 30.6×40.2cm. Kyujanggak Archiv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禁苑의 확장, 東郊



## 禁苑의 확장, 東郊

### 선농제향(친경례)

신농/후직씨에 제사, 정월(맹춘) 길일  
풍년과 권농을 위한 친경의례 거행



1909년 순종황제 친경식, 한미사진미술관 소장

## 禁苑의 확장, 東郊

### 선농제향(친경례)

신농/후직씨에 제사, 정월(맹춘) 길일  
풍년과 권농을 위한 친경의례 거행



선농단지, 1927~35년 촬영, 조선사편수회 촬영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오늘날 선농단



## 禁苑의 확장, 東郊

살곳이 목장(장한평)

매사냥 (태조, 태종, 세종)  
말 목장  
(사복시 전관 목장)



118. 進獻馬正色圖(什物進獻圖) 彩色部第大, 1663年, 30.0×44.6cm, 國立中央圖書館 所藏.  
Chishimsa Chingsaek-do, Picture of Horse Tribute. Manuscript map in color in 1663 A.D.  
30.0×44.6cm. National Central Library, Seoul.

## 조선궁궐의 원림문화

後苑, 禁苑, 宮苑

궁궐에 부속되거나 교외로 확장되거나  
임금의 소유공간, 권력의 상징공간

이상향 추구  
방어의 기능을 충족  
정치적 목적에 활용  
유락과 휴식, 감상의 공간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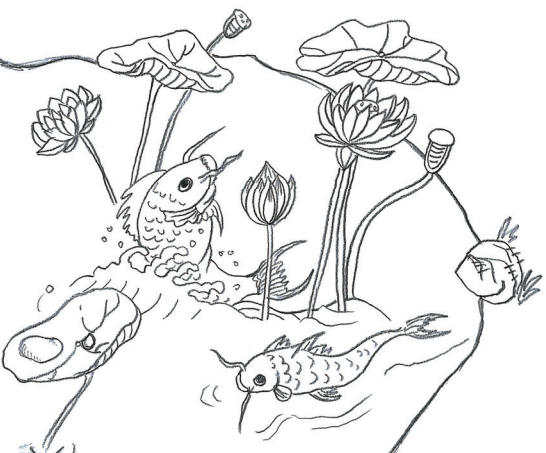






# 정원 문화 속 도자기 ... 실용과 완상의 기물

구혜인 (추계예술대학교)





# 정원 문화 속 도자기 실용과 완상의 기물



구 혜 인 (추계예술대학교)

## 들어가며

정원은 고대부터 공간을 장식하는 실용적 쓰임과 더불어 감상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나무, 꽃, 바위, 연못 등 자연을 이루는 각종 물상들이 이루어낸 경관은 속세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상상의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선인의 방안과 뜰을 장식하던 장식 물이지만 심성을 수양하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옛 선인들은 집안의 마당에 초목과 화훼를 심어두기도 하고, 화분에 옮겨 담거나 화병에 꽂아 집안에 들여놓기도 하였다.

정원문화에서 화분이나 화병, 즉 화기(花器)는 주인공이 아니다. 주인공은 나무, 꽃, 괴석 등 화기 안에 담겨진 자연이다. 그런 의미에서 화기는 비록 용기(容器)에 불과하지만, 살아 있는 생명이 살아가는 집으로써 그 생명의 생태에 알맞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즉 화기에 담길 화목 마다의 생태적 요건을 고려한 통기성·흡수성 등의 실용적 요건이 중요하다. 한편 화기는 그 자체가 예술품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조형을 갖추고 제작되기도 하다. 이 경우 화기는 완상과 감상의 기물이 된다.

정원문화의 주인공인 꽃, 나무, 괴석은 현재는 사라지고 없다. 그러나 다양한 종류의 화기들은 많은 수가 현전하고 있고, 그 중에서 도자재 화기는 주재료인 ‘흙’이 갖고 있는 긴 생명력으로 현재에도 남아있다. 화기의 재질과 기형은 매우 다양하지만, 본 강의에서는 주로 도자재 화기들을 집중적으로 살펴 ‘도자재 화분과 화병’을 통해 한국의 정원문화를 이해해보도록 하겠다.

## 도자재 화기(花器): 실용과 완상의 기물

중국은 정원문화에 대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정원을 가꾸는 기술과 감상법에 대한 저서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그 속에 화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언급되어 있다. 각종 화목들이 뿌리를 내리고 물을 빨아올려 살아가는 집으로서,

화기 중 귀한 종류들을 정사(精舍) 혹은 금옥(金屋)이라고 부른 것을 보아도 화종(花種) 뿐만이 아니라 화기(花器)를 선택하는 것에도 오랜 역사와 문화가 형성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고대 정원문화 속 화기를 살피기 위해서는 무덤 속 벽화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많은 무덤 벽화에는 당시의 꽃과 나무를 화분이나 화병에 담은 방식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예를 들어 중국 당나라 고종의 여섯 번째 아들이자 측천무후의 둘째아들인 장회태자 이현(章懷太子 李賢, 654~584)의 무덤 벽화에서는 내시로 보이는 한 관리가 두 뿌리의 꽃을 반(盤) 위에 담아가고 있다(그림1). 이처럼 수반 위에 꽃을 뿌리째 담아 기르는 방식이 중국 당나라 대에도 존재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송대 벽화에는 묘실 문 상단에 쌍룡이 서로 마주하고 그 가운데에 꽃을 한가득 담은 화기가 놓여 있다. 양 옆에는 연꽃을 꽃은 두 개의 화병이 배치되어 있다(그림2). 큰 원반에 꽃과 잎을 어울려 한 가득 꽂아 담거나, 꽃병에 한두 가지의 꽃을 꽂는 방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벽화에 그려진 모습으로 보아 이 때 사용된 화기는 도기일 가능성이 크다. 이 꽃들과 화기는 자연의 이치와 심성을 수양하는 매개체 라기 보다는 무덤을 장엄하기 위한 실용적 장식물라고 할 수 있다.



▲ 그림1 수반을 들고 가는 내시, 장회태자묘, 중국 당대



▲ 그림2 무덤문 상단과 양측에 그려진 화반과 화병, 중국 송대



▲ 그림3 진홍수(陳洪綬, 1599-1652), 음다독서도(飲茶讀書圖, 중국 명대)



▲ 그림4 고흥병(觚形瓶, 높이 27.5cm, 중국 청대 건륭년간,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 그림5 단원 김홍도, 포의풍류도(布衣風流圖), 27.9x37, 조선 후기, 개인소장

그렇다면 화기가 그 자체로 완상의 대상물이 될 수 있을까? 그 대표적인 사례로 화병인 화고(花觚)를 꼽을 수 있다. 원래 고는 중국 상~주시에 예기(禮器)로써 사용된 술잔이었다. 서주시 이후로는 청동기형으로 제작되지 않다가 송대에 청동기를 수집하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다시 고가 다양한 재질(옥기, 자기, 목기 등)으로 제작되었고 회화에도 등장하는데 이 시기부터 술잔이 아니라 화병으로 사용된다. 송대 문인들은 자신의 서재에 기물을 배치함에 있어 완물상지(玩物喪志) 하지 않으면서도 문인의 고아한 품격을 갖춘 한 두 개의 기물을 선별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고이다. 고가 가지고 있는 세장하고 우아한 형태적 특징이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보인다. 고대의 술잔이었던 고가 송대 이후부터는 삽화병으로 애호되어 ‘화고(花觚)’라고 불리는데, 이는 화고의 조형이 갖는 고식(古式)과 형태적 특징이 문인들의 화훼취미와 서로 상통했기 때문이다(그림3, 그림4). 화기 중 화고는 용기로써의 실용적 도구 뿐만이 아니라 문인적 취향을 반영한 완상의 대상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문화적으로 선택된 화고는 이후 중국과 우리나라 문인들의 정원문화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그림5). 우리나라에도 오랜 역사의 정원문화가 면면히 지속되었고, 그 안에서 다양한 종류의 화기들이 제작되어 사용되었다. 국내의 정원문화에 관한 이문서 중에서 대표적인 저술인 강희안(姜希顔, 1417~1464)의 『양화소록(養花小錄)』에서는 간단하지만 화분을 배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화분은 반드시 햇볕과 그늘이 고루 드는 곳에 둔다. 둘째 덩치가 큰 꽃나무는 뒤에 놓고 대(臺) 위에 올려 놓을만한 작은 것은 앞쪽에 배열한다. 셋째, 화분은 모두 구워서 만든 와, 전, 벽 등의 기와나 벽돌 위에 올려 놓으면 좋다. 넷째, 건조한 것을 싫어하는 석류, 치자, 산다화, 사계화 등의 품종은 꽃이 시들면 땅을 파고 지면과 나란하게 화분을 묻어 땅의 기운을 받아들이게 한다. 다섯째, 화분은 쌍으로 배열해도 무방하다. 이처럼 강희안은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화분을 놓는 장소, 배치하는 방식, 화종의 생리에 맞게 화분을 땅에 묻어 기르는 방식 등이 짧지만 다양하게 설명하였다. 이 내용들은 정원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화분의 적절한 구성과 배치를 위한 실용적인 정보들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허균(許筠, 1569~1618)의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 「병화사(瓶花史)」에서 언급된 화기는 감상과 완상의 대상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병화사」는 원굉도(袁宏道, 1568~1610) 등 중국문인들의 여러 문헌들을 옮겨온 것이지만, 당시 정원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합했던 조선 지식인의 관심을 알 수 있다. 그 중 화병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꽃을 기르는 화병은 모름지기 정밀하고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중략) 옛 고기는 청취색 무늬가 깊숙이 박히고 사석같은 점들이 불쑥하여서 꽃의 금옥이라 이를만하고 그 다음 관요, 가요, 상주요, 정주요 등에서 만든 그릇은 곱고 윤택하여서 다 꽃의 정신을 수향하는 곳(精舍)이라 이를 만하다’고 하였다. 가요, 관요, 정주요 등은 중국의 요장 이름인데, 이 요장들에서 제작한 화병이 꽃의 금옥이자 정사라고 한 것이다. 조선시대 그려진 회화들 중에서는 이 구절을 증명이라도 하듯 선비의 서재 속 장면 중에는 가요 자기들이 자주 확인된다. 이처럼 조선 지식인들이 중국문헌들을 통해 정원문



화 속 화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은 단지 문자의 베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문화를 재현하고자 하던 강렬한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화기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상징적 아이콘들이 이미 조선의 정원문화에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다. 「병화사」의 이어진 내용을 보면 ‘대저 서재 안의 화병은 반드시 왜소한 것이어야 하다. 그 규격이 다 단순한 것이어야 청공(靑空)할 수 있다.’라고 하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옛것이라 하더라도 속될 뿐이라 하였다. 그리고 오래된 화병에 꽃을 기르면 꽃 빛 까리 선명하고 마치 뜰의 생화처럼 빨리 피고 늦게 시들며 화병에서 열매까지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화병은 완상용일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측면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 고려 ~ 조선시대 화기의 종류와 흐름

우리나라의 정원문화에서 사용된 화기는 무엇이 있을까? 도자재 화기는 600도~1200도 이하에서 구운 도기재 화기와 1200도 이상에서 구운 자기재 화기로 나뉘는데, 이 중 도기 화분이 더 오랜 기간 동안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본 강의에서는 조형적 다양성과 장식의 변천을 논할 수 있는 자기재 화기에 대해 집중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전하는 고려청자 화기는 화분, 화병, 수반, 분대 등 다양한 기종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화여대대학교 소장의 <청자상감모란운봉무늬화분과 분대>는 화분과 받침이 함께 전해 지는 드문 사례인데 화분과 더불어 분대를 갖춘 고려대의 화기 형식을 알 수 있다(그림6). 또 너비가 약 30cm에 달하고 바닥에 7개의 구멍이 뚫린 대형의 <청자음각연화문화분>도 있다(그림7). 이 화분은 음각기법으로 연화문을 유려하면서도 풍성하게 장식하였다. 고려 청자의 화기 중에는 이 유물처럼 원통형의 화분이 많은 편이다. 음각 높이와 폭이 비례해서 커질수록 초화류보다는 화목이나 수목에 어울리는데, 단언할 수는 없지만 화분의 크기와 형태를 통해 그 세부 용도를 짐작해 볼 수는 있다. 또 꽃병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참외모양병도 빼놓을 수 없는 고려시대 청자 화기라 할 수 있다(그림8). 고려시대 제작된 화기는 이 외에도 종류가 다양하고 조형적으로 우수한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화분 제작 기술은 고려시대의 화훼 재배 기술과 정원문화의 발달을 기할 수 있는 척도라 할 수 있다.



▲ 그림6 청자상감모란운봉무늬화분, 23.3cm, 고려,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 그림7 청자음각연화문화분, 높이 24.4cm, 밑지름 29cm, 고려,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 그림8 청자상감모란국화 참외모양병, 높이 25.6cm,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 그림9 청화매죽문수반, 높이 6.5cm, 조선후기,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 그림10 백자청화철채투각포도문  
화분대, 높이 42.4cm, 조선후기,  
국립중앙박물관



▲ 그림11 백자청화석류분재문항아리,  
높이 34.3cm, 조선후기,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 왕실의 화기는 어디서 제작하였을까? 『태종실록』 1411년(태종11)의 기록에서는 내시(內豎)인 안화상에게 명하여 경상도 중모와 화령 등의 현으로 직접 가 화기를 만드는 것을 감독하도록 한다. 이 시기의 화기는 청자나 백자보다는 분청사기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광주 분원에 관요(官窯)가 설치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분청사기로 제작된 화분을 지방에서 제작하여 왕실에 진상하였다는 점과 이를 제대로 만드는지 감독하기 위해 내시를 파견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왕실의 정원을 관리하는 일도 중요했으므로, 그 격조에 상응하는 화분을 제작하는 일에 신경을 썼던 것이다. 이후 관요가 설치된 이후에는 주로 백자 화분의 경우는 주로 광주 분원에서 제작했다.

조선시대 자기재 화기는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다양한 기형이 현전한다. 화기는 주로 도기재질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량은 도기재 화기가 차지하고 있지만, 화기 자체를 장식과 완상의 대상으로 삼았던 풍조는 자기재 화기에서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화매죽문수반>은 장방형의 수반에 양각기법과 청화기법으로 매죽문을 각 면마다 장식하여 청아한 문인의 서재에 어울리는 화기라 할 수 있다(그림9). 또 <백자청화철채투각포도문화분대>는 화분을 올려놓는 용도로 제작된 화분대의 화려한 장식성과 백자 제작기술의 발전을 확인할 수 있는 화기이다(그림10). 이 외에도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백자 화기들이 제작되어 화훼와 초목을 담아 실내를 장식하거나 그 자체로 완상의 대상물이 되기도 하였다.

또 다른 측면에서 조선시대 정원문화는 백자의 장식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백자청화석류분재문항아리>의 동체에는 석류나무가 심어진 화분이 중심 소재가 되어 청화안료로 장식되었다(그림11). 이처럼 화분이나 화병에 담겨진 꽃과 나무들은 자체로 문양 소재가 되어 공예나 회화의 장식이 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괴석(怪石)이나 산을 형상화하여 만든 필세, 필가, 연적 등의 문방구류들이 다수 제작되어 자연 속 경물들을 문인들의 서재 속에 들어옴으로써, 자연과 정원을 실내에서 감상하는 풍조가 확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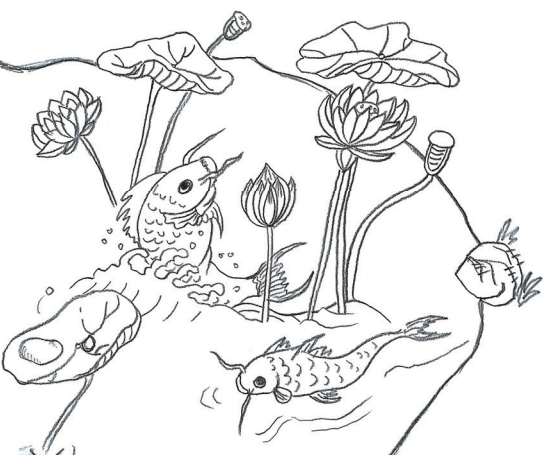




# 한시(漢詩)로 정원을

## 노래하다

권진옥 (고려대학교)





# 한시(漢詩)로 정원을 노래하다



권진옥 (고려대학교)

## 정원(庭園)

### 정원(庭園)

! 집 안에 있는 풀이나 꽃밭, 원정(園庭)

#### 정(庭)

뜰, 집 안에 있는 마당, 궁중(宮中), 궁궐(宮闕)의 안, 관청(官廳), 정청(政廳), 사냥하는 곳  
뜻을 나타내는 엄호(广 집, 지붕이 있는 마당)와 음을 나타내는 廷(정)이 합하여 이루어짐

#### 원(園)

동산, 뜰, 밭, 농, 원소(苑沼 동산과 못), 별장(別莊)  
뜻을 나타내는 큰밭구멍(口 에워싼 모양)과 음을 나타내는 袁(원)이 합하여 이루어짐

## 정원(庭園)

### 봄날 밤 도리원 연회에서 지은 시문의 서

春夜宴桃李園序

당[唐]나라 이백[李白, 701-762]

무릇 천지라는 것은 만물을 맞이하는 어관이고, 광음 자시간이라는 것은 긴 세월을 거쳐 지나가는 나그네이다. 덧없는 인생 꿈과 같으니, 즐긴다 하어도 얼마나 되겠는가?

夫天地者, 萬物之逆旅, 光陰者, 百代之過客, 而浮生若夢, 爲歡幾何?

옛사람들이 촛불 들고 밤에도 노닐 것은 진실로 까닭이 있었구나.

古人秉燭夜遊, 良有以也.

## 정원(庭園)

하물며 따뜻한 봄날이 안개 낀 아름다운 경치로써 나를 부르고, 천지가 나에게  
문장을 빌려주었음이라

況陽春, 召我以煙景, 大塊, 假我以文章,

복숭아꽃 오얏꽃 핀 향기로운 뜰에 모여 천륜의 즐거운 일을 펼치니, 여러  
아우들의 글 솜씨가 배어나 모두 해련이거늘, 내가 읊은 시만이 강락에게 부  
끄러워서야 되겠는가?

會桃李之芳園, 序天倫之樂事, 群季俊秀, 皆爲惠連, 吾人詠歌, 獨慙康樂,



## 정원(庭園)

그윽한 감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고아한 담론은 점점 많아진다. 화려한  
잔치를 벌여 꽃 사이에 앉아 새 모양의 술잔을 주고받으며 달 아래 취하니,  
아름다운 글이 없으면 어찌 고아한 심정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만약 시를  
짓지 못하면 그 별은 금곡의 별주수에 따르리라.

幽賞未已, 高談轉清. 開瓊筵以坐花, 飛羽觴而醉月, 不有佳作, 何伸雅懷? 如  
詩不成, 罰依金谷酒數.



## 정원(庭園)

○ 춘야연도리원서(春夜宴桃李園序): 이백이 봄날 화려한 정원에서 여러 형제들과 모여 잔치  
를 벌이며 서로 시와 부를 지으며 놀았는데, 이때 지은 시들을 모아 책으로 만들면서 그 서문  
으로 쓴 글이다. 꽃피는 정원에서 화려한 잔치를 벌이면서도 일생무상의 짙은 애수를 느끼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 이백(李白: 701-762): 자는 태백(太白)이며, 호는 청련거사(靑蓮居士). 시성(詩聖) 두  
보(杜甫)와 더불어 성당(盛唐)의 대표적인 시인. 청신하고 화려한 시구에 자유분방한 천재적  
인 시풍과 도가적인 풍모가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시선(詩仙)이라 불렀다.

○ 역려(逆旅): 객사와 같으며 여관을 의미한다. '역' 은 마중하다, 곧 나그네를 맞이하는 곳.

○ 광음(光陰): '광' 은 일, '음' 은 월, 곧 세월을 말한다.

○ 부생(浮生): 연생을 가리키는 말인데, 인간 세상이 헛되고 안정됨이 없는 것을 부생이라고  
한다.

○ 위환(爲歡): 즐겁게 노는 것을 가리킨다.





## 정원(庭園)

- 병촉야유(秉燭夜遊): 촛불을 가지고 밤에 노는 것을 말한다. '병'은 잡다, 들다.
- 양유어(良有以): 진실로 매우 까닭이 있다는 것이다. '양'은 진실로, 틀림없어. '어'는 원인, 근거.
- 연경(煙景): 아지랑이 낀 봄날의 경관.
- 대괴(大塊): 천지, 대자연의 의미이다. 《장자·재물론(莊子·齊物論)》에 "대자연이 트임한다"라 하였다.
- 군계(群季): 여러 동생이란 뜻이다. 옛 사람들은 백(伯)·중(仲)·숙(叔)·계(季)로 형제간의 장유(長幼)의 순서를 의미하였다.
- 혜연(惠連): 사혜련(謝惠連)을 말한다. 남조 송나라 진군(陳郡) 양하(陽夏) 사람으로, 사령운(謝靈運)과 더불어 시를 잘 지었다.
- 강락(康樂): 사령운을 말한다. 강락공(康樂公)에 봉해졌으므로 사강락이라고 한다.
- 우상(羽觴): 두 개의 귀가 달린 참새 모양의 술잔이다.
- 금곡주수(金谷酒數): 진(晉)나라 석송(石崇)이 금곡원(金谷園)에 손님들을 초대하여 주연을 베풀고 이 자리에서 시를 짓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벌로 술 세 말을 다시 하게 하였다고 한다.

## 정원(庭園)

### 정원(庭園)의 공간

감성(感性)의 공간

교유(交遊)의 공간

철학(哲學)의 공간

상상(想像)의 공간

## 감성의 공간

### 감성(感性)의 공간

고요한 정취 속의 여유

일상생활 속의 흥취

자연만물과의 교감

세속과 단절된 고독

## 감성의 공간

### 절구[絶句]

옥당의 높은 곳엔 먼지 하나도 없는데 玉堂高處絕塵埃  
한낮의 청풍이 푸른 괴나무를 움직이네 白日清風動綠槐  
장관께 한 번 읊하고 은종일 앉았노라니 一揖長官終日坐  
우는 새 두어 소리가 뜰 이끼에 가득하네 數聲啼鳥滿庭苔

이색[李穡, 1328-1396]의 『목은집[牧隱集]』



## 감성의 공간

뜰 가에 울금초[鬱金草]를 심었는데 가을이 되니 줄기와 잎이 무성하여  
사랑스럽다

種鬱金草於庭除 秋來 莖葉茂盛可愛

뒤 뜰에 일찍이 울금향초를 심었더니 後庭曾種鬱金香  
잎 크기는 파초만 하고 열매는 생강만 하네 葉大芭蕉子大薑  
가을에 이르자 더욱더 사랑스러워라 到得秋來尤可愛  
무성한 푸른 그늘이 처마가 닿게 자랐구려 沈沈翠影拂簷長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의 『사가집[四佳集]』



## 감성의 공간

정원을 배회하며 즉흥적으로 노래하다

巡園卽事

오사모 반쯤 젖혀 쓰고 명아주 지팡이 짚고 烏巾半岸杖枯藜  
정원을 산보하다 보니 해는 지려고 하는데 步屣園中日欲西  
요란한 바람에 버들은 잠에서 깨어나고 楊柳起眠亂風際  
가랑비 속에 해당화는 숙면을 취하누나 海棠熟睡微雨餘  
뜨락을 뚫고 나온 대는 손자가 자라나고 迸階綠竹生孫長  
잎에 붙은 푸른 매실은 열매가 등성하네 著葉青梅結子疎  
어린 동복 불러서 채소밭에 김 다 대고는 爲喚童奴鋤菜了  
와분에 물 더 주어 연꽃을 기르게 하노라 瓦盆添水養芙蓉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의 『사가집[四佳集]』



## 감성의 공간

정원을 배회하며 즉흥적으로 노래하다

巡園卽事

바쁜 가운데 한가함도 있음을 누가 알리오 忙裏誰知亦有閑  
정원을 돌아 천천히 거닐며 구경하노라니 巡園聊復緩行看  
냉이랑 속은 이미 자랐고 창포는 새파란데 薺萊已長菖蒲綠  
살구꽃은 반쯤 피고 매화는 벌써 시들었네 紅杏半開梅已殘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의 『사기집(四佳集)』

## 감성의 공간

오동나무와 대나무가 가득한 도산(陶山)의 트랙을 달빛을 타고 배회하  
노라니 감정이 일어 눈물을 흘리다

陶山梧竹滿庭 乘月徘徊 感淚潸然

저녁 구름 떠 있는 가 유정문 닫혀 있고 幽貞門掩暮雲邊  
사람 없는 트랙 가엔 달빛만이 가득하네 庭畔無人月滿天  
천 길 높이 날던 봉황 어디로 날아가고 千仞鳳凰何處去  
벽오동과 푸른 대만 해마다 자라는가 碧梧青竹自年年

김성일(金成一, 1538-1593)의 『학봉집(鶴峯集)』

## 감성의 공간

뜰에 작은 매화나무 한 그루가 있어 푸른 가지와 초록 잎새가 엉성하여 보기에 좋았  
다. 매미가 날아와 가지에 앉아서 길게 우는데 슬피 흐느끼는 소리가 가녀리어 혼자  
적적하던 차에 한가로운 맛을 더하기에 족하였다. 이에 드디어 절구 한 수를 읊다  
庭有小梅一株 青枝綠葉 扶疎可愛 鳴蟬來止 抱柯長吟 哀咽纖圓 足添孤寂中閑味 遂  
爲賦一絕

외로운 의표 얼음과 눈 고통을 겪었는데 孤標要經冰雪苦  
많은 그늘 여름 햇볕 늦추기에 충분하네 淸陰又足夏曦遲  
매실 이미 국 끓이는 사람 손에 나뉘 주고 已分青子和羹手  
다시금 또 매미 불러 늙은 가지 얹히었네 更引高蟬著老枝

조호익(曹好益, 1545-1609)의 『지산집(芝山集)』

## 관성의 공간

우연히 보니 들 앞의 푸른 대, 푸른 솔, 노란 국화가 스스로 세 벗이 되었기에  
偶見庭前綠竹蒼松金菊自作三友

대는 솔의 높은 절개 사랑하고	竹愛松高節
솔은 대의 순수한 성품을 아끼네	松憐竹守眞
가을 들어서 한 벗이 늘어났으니	秋來添一益
노란 국화가 좋은 이웃이 되었구나	金菊作芳隣

이응희(李應禧, 1579-1651)의 『옥담집(玉潭集)』

## 관성의 공간

정사의 뜰에 기대어 작은 누대를 세워 짓고 '열친척낙금서지대' 라고 이름  
지었다. 또 읍시 한 수를 지었다

精舍庭畔因樹築小臺命曰悅親戚樂琴書之臺 又題一律

멀리 푸른 강 하얀 모래 감아 도는 곳	迺對蒼江遶白沙
석대 한 편은 마음에 두었던 아름다운 곳이네	石臺一面意中佳
비 갠 밤 시원한 바람과 맑은 달빛 서로 기다린 듯하고	光風露月如相待
고기잡이와 나무꾼도 나를 멀리 하지 않네	漁弟樵兄不我遐
관대를 하고 다행해도 군자 나라에 태어나서	冠帶幸生君子國
거문고 타며 야인의 집에서 항상 즐기네	絃歌常樂野人家
뜰 옆의 대나무 몇 그루 아끼노니	每憐庭上數叢竹
풍상을 다 겪고도 기울지 않으려 하네	閱盡霜飈未肯斜

유중교(柳重敎, 1832-1893)의 『성재집(省齋集)』

## 교유의 공간

### 교유(交遊)의 공간

풍류와 호사의 표현

권면과 당부의 우애

해학과 풍자의 미학

가족애의 간절함



## 교유의 공간

### 십청정(十淸亭)을 노래하다

題十淸亭

승상께서 동쪽 성곽 옆에 새로 정자 지으시니  
정자 앞 총총한 바위, 신의 숨서로 빚어졌네  
의연히 여산의 면모처럼 아름답게 자리하여  
괴이하게도 물래 맑디맑은 샘과 통하네  
열 그루 곱은 가지 울창하게 서로 나란히 서서  
한겨울 눈 쌓여도 푸른빛 여전히 어여빠라  
공평한 저 물색 마음을 겸하여  
오래 참아 주위 이겨내니 저마다의 힘으로세

承相新亭東郭偏  
亭前叢石被神鞭  
依然幻置廬山面  
怪底潛通玉亂泉  
十樹樛枝鬱相竝  
三冬積雪翠還妍  
平章物色兼心事  
耐久凌寒各一權

황정욱(黃廷彧, 1532-1607)의 『지천집(芝川集)』

## 교유의 공간

### 최상(崔相)이 뜨락 앞에 들꽃을 옮겨 심은 다음 시를 지어 읊고는 화답을 구하기에 짓다

崔相庭前移種野花 詠詩求和

새가 우는 외로운 관에 새벽 왔는데      鳥鳴孤館曉  
비 내리어 작은 정원 질척해졌네      雨浥小庭泥  
채마밭에 물 덩 생각 갇스레 나고      灌圃空存想  
술 단지를 할 수 없어 맘 서글프네      澆壺悵莫携  
고운 별은 꽃 피우길 재촉하는데      麗暉催蕊發  
이슬은 꽃멀기 눌러 처지게 하네      繁露壓叢低  
꽃이 객 맘 흐린다고 누가 말했나      誰道花迷客  
꽃에 끌려 객 스스로 흐려진 거네      牽花客自迷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의 『청음집(淸陰集)』

## 교유의 공간

### 새봄의 기원

春祝

일천 산의 적설 속에 한 병든 늙은이      積雪千山一病翁  
인간 만사는 모두가 허사로 돌아갔다네      人間萬事總成空  
소원은 새봄이 오면 우리 형제 함께 모여      只願春來兄弟會  
들 가득 꽃나무 속 봄바람에 취했으면      滿庭花樹醉春風

권상하(權尙夏, 1641-1721)의 『한수재집(寒水齋集)』

## 철학의 공간

### 철학(哲學)의 공간

심성수양의 공부

일상에서 우주로 확대

개인과 자연의 조화

자연에서 철리 모색

## 철학의 공간

### 뜰을 청소하다

灑掃庭除

집을 지어 겨우 공사를 마치고      作室成纖落  
지방관 되어 가서 못 돌아왔더니      分符去未回  
비바람은 비록 가릴 만하건만      雨風雖可庇  
빙설은 문득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氷雪却成堆  
쏟고 나니 금세 시야가 맑아지고      灑掃俄淸眼  
신기해라 어네 모습이 일신되었네      新奇旋奪胎  
비로소 알겠도다 방촌의 자리엔      始知方寸地  
물욕을 먼저 꺾어야 하는 것을      物欲要先摧

이색[李穡, 1328-1396]의 『묵은집(牧隱集)』

## 철학의 공간

### 빗속에 감회가 있어서

雨中有感

정원이 고요하여 섬돌에 이끼 끼고      庭園寥寥滿砌苔  
그윽한 속에 비 만나니 시 생각이 열리누나      幽人看雨暢詩懷  
긴긴 날 문 밖에 길은 질어 흙탕인데      日長門外春泥滑  
처마 끝의 저 제비 다정한 양 찾아드네      唯有簷前燕子來

권근[權近, 1352-1491]의 『양촌집(陽村集)』



## 철학의 공간

### 뜰의 풀

庭草

뜰 가운데 잔풀은 초록빛 더욱 짙은데 庭心細草綠滋茸  
봄날의 비와 이슬 맞도록 내버려두네 一任春天雨露濛  
아이들에게 밟지 말라 애써 말하니 苦語兒曹休踐躡  
조물주의 생의는 절로 무궁하다네 化工生意自無窮

구봉령(具鳳齡, 1526-1586)의 『백담집(栢潭集)』

## 철학의 공간

### 서당에서 우연히 노래하다

書堂偶吟

한가롭다 사립문 푸른 시내를 향해 열렸는데 柴扉閑向碧溪開  
노송이 자리잡은 빈 뜰에 달이 절로 찾아왔네 松老庭空月自來  
나 홀로 밝은 창가에 앉아 책을 펼친 뜻은 獨對明窓舒卷秩  
쌍아 온 이 공부 성현의 재단을 받고파서라 斐然要就聖賢裁

정은(鄭蘊, 1569-1641)의 『동계집(桐溪集)』

## 철학의 공간

『격양집(擊壤集)』 속의 대나무 뜰에서 잠 깬 시의 운을 차하다.

次擊壤竹庭睡起韻

먼 지방에도 볼 만한 것 있으니	遐方猶有眼開處
날마다 뜨락의 대 자라나는 모습 보네	日見庭筠箇箇長
그윽한 꿈 깨자 조가 반이나 익고	幽夢醒來梁半熟
비 갠 후 보리 이삭 완연히 노랗구나	小霖收後麥全黃
귀양살이 초췌한 형상 말하지 말라	休言楚澤形憔悴
요종의 명에 응대하던 길에 기억하노라	長憶寧陵命對揚
옛 역사 찬찬히 보면 마음에 얻을 있으니	舊史閒看心有會
성현들은 원래 간사함을 용서치 않았네	聖賢元不恕姦強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송자대전(宋子大全)』

## 철학의 공간

청명각 동쪽 뜰 아래로 열 그루의 대나무를 옮겨 심고서

清明閣東階下移種十挺竹

몇 그루 대나무를 빗속에 옮겨 심었으니 幾箇叢篁帶雨移  
이끼 낀 뜨락에서 맘껏 새 가지 자라게지 苔階隨意長孫枝  
한가한 도화 버들은 봄빛을 다투지만 等閒桃柳爭春色  
해 저물어도 곧은 마음 나만이 알겠어라 歲暮貞心只自知

이상정(李象靖, 1711-1781)의 『대산집(大山集)』

## 상상의 공간

### 상상(想像)의 공간

정원의 이상향 추구

풍류 속의 해학과 익살

신선세계의 염원

## 상상의 공간

최태보의 집에 석가산 세 덩이가 있는데 봉우리와 동열이 영롱하여 사랑스러웠다. 그 중 하나를 바꾸어다가 서실 곁에 두고 싶으나 나의 집에는 한 가지 물건도 그 가치에 상당할 것이 없으므로, 우선 동파의 호종구화운을 사용하여 태보에게 바치다

崔台甫家有石假山三 朶峯巒洞穴玲瓏可愛也 欲易其一 置之書室傍 僕之家無一物可相直者 姑用東坡壺中九華韻 呈台甫

## 상상의 공간

그대 집에서 일찍이 푸른 세 봉우리를 보니 君家曾睨碧三峯  
가슴속에 끼인 먼지가 갑자기 없어졌네 塵土襟懷忽已空  
만리 밖의 구지석은 다리 밑에 와 있고 萬里仇池來脚底  
천길의 원교산은 마당 가운데 벌여 있는데 千尋圓嶠列庭中  
송삼 소리는 은은하게 절벽에 메아리치고 松杉隱巖崖響  
연기 안개는 흩어져서 동혈을 관통하누나 煙霧霏霏洞穴通  
문득 한스러워라 나는 한간의 말이 없으니 却恨吾無韓幹馬  
현창 아래 어떻게 영롱한 돌을 마주하리오 軒窓那得對玲瓏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의 『점필재집(沾畢齋集)』

## 상상의 공간

자운하여 석가산(石假山)을 노래하다 【성국공(成國公) 주응정(朱應禎)의 별장이다】

次韻石假山 【成國公朱應禎別墅】

잘사는 집 사람들은 낮고 좁아도 좋은가 봐	朱門初不厭卑狹
굳이 일 만든 풍류라니 구주 가운데 묘하구려	好事風流妙九州
천태(天台) 본며 만든 산도 희극이라 할 만한데	台嶽挺奇生戲刺
괴이한 수석(水石)들 가져다가 태호를 또 빚어 냈군	太湖叢怪入掄搜
바위 사이로 뚫린 미로 겨우 한 사람 용납할 듯	岳間徑竇容人繞
굴 속의 방과 마루 역시 달는 곳마다 어둡침침	洞裏房櫺着處幽
고작 스무 해 동안에 주인이 세 번 갈렸더니	二十年來三易主
소나무가 봄과 가을 제일 많이 보았겠네	松杉最是閱春秋

최립(崔崧, 1539-1612)의 『간이집(簡易集)』

## 상상의 공간

석가산(石假山)

바윗돌이 창강에 잠겨 있을 때는 언제런고	何年巖骨浸滄江
호사가라 우공이 힘을 다해 들고 왔구나	好事愚公費力扛
자라 등에 얹힌 삼산은 여기 제일이고	鰲背三山茲第一
호로 속의 구악은 짝을 찾기 어려워라	壺中九岳定難雙
검문을 하늘이 뚫어 금우의 길을 내었고	劍門天鑿金牛路
석실은 구름 자욱해 옥녀의 창을 가렸네	石室雲迷玉女窓
높은 사다리 올라 깎아지른 시내 엿보려니	試踏飛梯窺絕洞
지팡이 끝에서 먼저 발자국 소리 들리는 듯	杖頭先響足音聲

이정구(李廷龜, 1564-1635)의 『월사집(月沙集)』

## 상상의 공간

장 찰원의 성안에 있는 화원[花園]에서 석가산[石假山]을 보다 【위에는 작은 정자가 있고 아래에는 어둡한 동부[洞府]가 있어서 기묘한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았다】

張察院城內花園觀石假山【上有小亭下有陰洞 奇巧絕勝】

한 구역의 좋은 경치 술단지 속 숨었거니 一區眞境秘壺中

청도 속의 작은 옥봉을 한가로이 차지했네 閑占清都小玉峯

석만경의 신선 인연 박했던 게 우습거니 却笑曼卿仙分薄

죽어서야 부용봉의 주인 될 수 있었구나 異生方許主芙蓉



제19기 박물관대학 상반기 과정

## 삶의 여유 공간, 庭園

발 행 일 2017. 5. 26.

발 행 인 인천광역시립박물관장 조우성

발 행 처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전시교육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60번길 26  
032.440.6750

<http://museum.incheon.go.kr>

북디자인 성용기획디자인 | 김미경

표지디자인 인천시립박물관 | 조유미